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북한인권 연설 화제 오준 대사 인터뷰 일본 때리기와 국제적인 범죄 문제는 구분하자



오준 주 대한민국 유엔 대사

위안부 문제 등 일본 때리기로 보여져선 안돼  
한일관계 넘어 국제적인 압박이 필요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주장  
일본 때리기 아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외교와 유엔의 업무는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구름 등 대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과 유사하다. 구름을 예측하고 미리 댐을 쌓고 우산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외교에서 출발한다. 비가 내릴 때어야 옷이 젖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미 늦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있어 늘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있다. 복잡한 현안 중 풀 것은 풀고 매듭지을 것은 묶어야 미래가 담보된다. 유엔에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표하는 오준 유엔 대사에게 한일관계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14일 아침 렉싱턴에 잠시 머물고 있던 그를 찾았다.

오준 대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엔 전문가이자 다자 외교통으로 꼽힌다. 1978년 외무부에 들어가 유엔과장, 주 유엔 총회의장 보좌관, 국제유엔 군축위원회(UNDC) 의장 등 유엔 관련 직책을 두루 거쳤다. 유엔 차석대사 재임 때인 2006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외교부 내 선배들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2013년 8월 말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로 내정됐다.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첫 회의에서 오준 대사는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누구나가 아니다” 라는 즉흥 연설로 장내를 숙연케 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튜브와 한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다.

질문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이 전혀

▶▶2면으로 계속

## 두 회장의 이북도민회, 고국방문단 '위기'

회장단 싸움에 고국방문단 등 터지는 상황 벌어져  
고국방문단 무산될 지, 20일 결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잉글랜드 이북도민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를 빚고 있다. 이로써 5월 한국 여행을 앞두고 있는 고국방문 신청자들만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단체의 회장을 자처하고 있는 두 인물은 이북도민회의 공식 회장으로 있는 이동수 씨와 유순나 전 부회장으로 두 사람 모두가 본인 이 진짜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수 회장은 2014년 1월 회장직을 맡아 현재 2년째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유순나 전 부회장은 임기 1년이 지났으므로 회장직이 본인에게 넘어왔으며 이동수 씨가

회장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 주장의 근거는 이북도민회 회칙에 있다. “이북도민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1월 1일 부회장이 회장직을 이어받게 된다” 며 “회칙대로라면 올해 1월 1일 이북도민회의 회장이 바뀌는 것이 맞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북도민회 이병현 이사장은 이 회칙이 오래전에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북도민회는 작은 단체라 회칙을 굳이 수정해서 보관하고 있진 않지만 지난해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했다. 이는 이사회와 함께 결정한 사안이며 그자리에 유 씨도 함께 있었다” 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황당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병현 이사장은 “지난해 유순나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제명돼 사실상 회원도 아니다”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다음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www.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Korean Line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 일식당: 매상 \$600k+, Beer&Wine License 포함, 고정적인 수입, 보스톤 인근, Asking: \$250,000  
• 일식당: 매상 \$800k+, Beer&Wine License 포함, 많은 유동인구, 좋은 위치, 보스톤 인근, Asking: \$500,000  
• 단독건물 식당: Business only, Peabody위치, 150+석, Full liquor, 50+파킹, Asking: \$250,000  
• 일식당: 브루클라인 콜리지코너, 3300 SF, 많은 유동 인구, 최적의 장소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450,000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loanDepot.com, LLC d/b/a Mortgage Master, 102 Elm Street, Walpole, MA 02081, Telephone 508-850-4100, Fax 508-850-4200. All rights reserved. NMLS ID #174457 (www.nmlsconsumeraccess.org) Massachusetts Mortgage Lender/Broker License MC174457

# 북한 인권법 가해자 압박, 피해자 구제 동시 담아야

▶▶1면에 이어서

없었음에도 인터뷰가 시작되자 오 대사는 밥알을 꼭꼭 씹어 소화시키는 것처럼 정확하고 꼼꼼하게 답변했다.

▶최근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라는 문구에서 앞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말만을 사용했다. 이 같은 일본의 행동에 갖는 의도는?

아베 총리가 들어온 이후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엔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아베 정부의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일본이 왜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위안부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 대해서 양국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미 국무 차관 웬디 셔먼이 “한 중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상황을 이용해 반일 행보로 값싼 박수를 노리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일본과 한, 중이 모두 잘못이 있다” 라는 발언으로 한국을 분노케 했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국무부 차관인 그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우발적으로 보기 힘들데 미국의 동북아 과거사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

미국의 위안부 문제와 관한 기본입

장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발언 이후에도 미국 정부에 이에 대한 언급을 했고 미국의 위안부에 관한 입장은 세계 어느 나라가 내어놓는 것보다 분명하다. 그 입장은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sexual purposes by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이렇게 시작된다. <일본 군부에 대한 여성인신매매>라고 시작되는 기본 라인만 봐도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다.

웬디 셔먼 차관의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뜻은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가 과거사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풀고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있으며, 이에 관한 미국의 인식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본다.

▶유엔대사로서 지난해 “일본지도자들의 언행이 국가간 불신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에게 돌직구를 날리신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차원과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제적인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일본에 대해서도 조치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일 관

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일본의 반성을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분명한 입장으로 일본의 과거사 인정과 반성을 요구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소위 ‘일본 때리기’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이면서도 인류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일본 때리기의 일환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일본 때리기를 많이 하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일본 때리기로 오해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으로 분명하지만 독도문제는 국내적으로 아주 분명한데 비해 국제적으로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독도와 동해 표기는 위안부 문제와는 다른 한일 양자적 관계이지만 독도는 영유권에 관한 문제다. ‘일본 때리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고 다만 위안부 문제와 차이가 있다면 인류 전체 국제적인 이슈이고 독도 동해문제는 양자적 성격이 강하다.

일본 때리기는 일본 혐오 차원에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말한 것이다. 독도는 영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일본을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다. 동해표기에

관한 것은 바다의 명칭이 일본어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최소한 동해 명칭이 병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과거사를 반성해야 미래가 있다는 충고를 했음에도 일본은 유대민족을 학살한 독일과 다르다며 과거를 부인하고 있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Genocide로 불려진다. 대량학살은 국제적인 범죄이고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4대범죄(대량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의 하나다. 또 한편으로 위안부처럼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여성을 성노예로 착취한 제도적인 범죄도 반인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 본다. 전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 범죄도 대량학살과 마찬가지로 국제 형사 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다. 일본이 독일만큼 대량학살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 등이 가벼운 범죄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 들어 고노담화의 배경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성이 없다든지, 정부개입이 분명하지 않다든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유엔 연설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라는 연설로 큰 호응을 받으셨다. “부디 훗날 우



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란 말이 가슴을 울렸다.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유엔의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드물다. 이는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유엔 총회는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이러닝 펌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2면에 이어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Naming and Shaming Approach(압박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토의함으로써 해당국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이 오늘날 세계에서는 독자적으로 혼자 사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인권 이사회에 결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10개가 채 안된다. 상황이 좋아지면 결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기에 여기서 빠지려고 노력한다. 북한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압박조치 효력이 좀 떨어진다. 국제적인 뉴스를 보고 주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효과가 많다. 그러나 최근 유엔 총회결의안을 막아보려 했고 인권 특별 보고관을 초청해서 북한 인권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최근 일련의 반응을 보면 북한이 이 압박조치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에서는 북한 인권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진정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법은 어떤 것인가?

안보리에게까지 인권침해가 보고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북한 3차례 밖에 없었다. 북한의 인권은 안보리에게 제기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안보리에 제기될 정도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우리와 같은 동포다.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5분

정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3분 동안 인권피해의 피해자가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만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 했다.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침해를 못하게 할 것인가. 국제 사회의 압박이 그 하나이다. 인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탈북자 등 인권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 가해자를 막고 피해자를 돕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의장으로 활동하시게 됐다고 들었다.

현재 부의장인데 이 다음 번에 아시아에서 의장을 맡을 순번이므로 오는 7월부터 임기를 맡게 된다. 경제사회 이사회는 안보리와 같이 현장 기관으로 경제 사회분야 모든 이슈를 관장한다. 이사국은 54개국이다. 사실상 유엔의 3대 주요 영역 즉 평화개발 인권 중 두번째 개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현대에서는 개발이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개발을 말하기 때문에 안보리 못지 않게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의장국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50년에 한번 정도 오는 것인데 유엔 가입 하고 24년 만에 일궈낸 것이다. 금년과 내년에는 경제사회 이사회, 장애인 권리 협약 이사회도 2년간 이사장을 맡게 되어서 겹치게 된다.

editor@bostonkorea.com

# 오준 유엔 대사 “지적인 도시답게 인상적인 강연”

젊은 세대 한민족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해야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전쟁, 통일 최선책 될 수 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준 주 대한민국 유엔 대사의 북한인권 강연이 지난 13일 금요일 오후 6시 하버드 법대에서 열렸다.

100여명이 모인 이날 강연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를 비롯한 각 한인단체장, 학생 및 교수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별히 뉴욕 코넬 대학교 학생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이어진 질의응답에도 적극 참여했다.

오준 대사는 강연 후 인터뷰를 통해 “지적인 도시답게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이 많아 인상적이었다”며 “유엔이나 북한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관심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연을 통해 오준 대사는 “오늘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어떤 나라도 고립된 섬이 될 수 없다. 유엔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적 압박은 효과를



오준 대사의 북한인권 강연에 100여명이 참석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가져오게 마련”이라고 전했다.

질의응답에는 남북통일이 최고의 관심사로 꼽혔다.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한 비용을 두려워하고 젊은 층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거듭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통일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오준 대사는 “미국은 남한의,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동맹국인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하버드 교육정책 연구센터의 셀레나 탠은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강연이었다. 북한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 기회가 없었는데 유엔에서 활동하는 대사로 부터 강연을 듣게 되어 더욱 좋았던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 주최로 열린 오준 유엔 대사의 하버드 강연은 인권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강연에 앞서 버클리 음대 연주단(지휘 이정욱)이 연주를 선보였다.

dyoo9146@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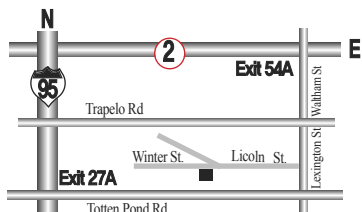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4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보스톤 올림픽 유치, 소수민족 이민자에게 기회로

관광업 활성화로 스포츠 비즈니스 성장 기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올림픽 민간 조직위 '보스톤 2024'가 지난 18일 수요일 첫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유치가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했다.

보스톤 2024 파트너십의 리처드 데이비 대표(Richard Davey)는 "2024 보스톤 올림픽은 소수민족 이민자 커뮤니티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관광업의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민족 기자회견과 각종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이민자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 대표의 간략한 인사말 후 곧바로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일자리 창출

과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라틴계 언론 관계자는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올림픽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일 것"이라며 일자리의 장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데이비 대표는 "건설이나 관광업, 올림픽 기획 분야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최소한 2024년까지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며 관광업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 데이비 대표는 "가장 중요하게는 열차를 추가 구입하고 배차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교통시설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철 및 기차역의 추가 개설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교통시설 확충이 올림픽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지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올림픽 시설이 건설될 지역 주민들의 거주 문제, 길거리 노숙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데이비 대표는 "올림픽 유치가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데이비 대표는 소수민족 언론사들의 모든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의견을 적극 수렴했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우스 보스톤에 위치한 보스톤 2024 파트너십 본부에서 열렸으며 리처드 데이비대표와 에린 머피(Erin Murphy) 부사장, 니코 멘도자(Nikko Mendoz) 외교 부처 부사장이 참석했다. 소수민족 언론사로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해 중국, 일본, 남미, 아프리카 등의 언론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보스톤 올림픽 유치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



리처드 데이비 보스톤 2024 파트너십 대표

보스톤 2024가 주최하는 다양한 지역 이벤트나 기타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2024boston.org)를 통해 알 수 있다.

보스톤은 지난 1월 9일 미국올림픽 위원회에 의해 미국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로마, 이탈리아, 부다페스트 등의 세계 도시와 나란히 경쟁하게 된다. 최종 개최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투표로 2017년 결정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하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 회원사

## 중앙대 보스톤 동문회 모임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중앙대학교 보스톤 동문회(회장 이기환) 19차 정기총회가 오는 29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청기와 레스토랑

에서 동문회와 함께 열린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문회 활동 보고 및 발전에 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기환 회장은 "많은 동문

이 참석해 청룡 중앙인의 자리를 빛내고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아울러 신입회원 및 학생 회원들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동문회 문의를 이기환 회장(781-270-4627)이나 조재석 총무(978-558-3567)에게 연락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5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청기와 레스토랑 (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김제동과 주진우의 애국소년단 하버드 강연 일시 확정

오는 28일 오후 6시, 하버드 사이언스 C 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방송인 김제동과 주진우 기자가 함께하는 애국소년단의 강연이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하버드 사이언스 센터 C 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은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연은 무료 입장이다.

이번 하버드 강연을 추진한 남궁범진 씨(하버드 박사 과정)는 “세월호 사건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비록 해외에 있지만 모국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서로 맞아떨어져 (이번 강연이) 성사되었다” 며 기획 취지를 밝혔다.

남궁범진 씨는 2012년 하버드 한인 학생회 임원이었을 당시 ‘나는 꿈수다’ 강연을 준비했으며 종종 연락을 주고 받던 주진우 기자가 애국소년단



순회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동부 쪽도 오면 좋겠다 싶어 이번 하버드 강연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애국소년단은 방송인 김제동과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토크쇼로 현재 파리와 런던 등의 도시에서 순회 강연을 열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

스톤과 뉴욕에서 강연이 개최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9시  
 장소: 하버드 사이언스 센터 C홀(1 Oxford St, Cambridge, MA 02138)  
 dyoo9146@bostonkorea.com

## 회칙 둘러싸고 '회장 임기' 시비 붙어져

▶▶1면에 이어서

이사회 모임에 참석했다. 나가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나가지 않아 무력을 쓸 수 없어 경찰을 부르게 된 것”이라며 당시 경찰까지 불렀던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유순나 전 부회장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유 씨의 남편인 유한선 전 한인회장은 “(이 회장이) 회칙을 임의로 바꾸고는 회장직을 계속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래 싸움에 터지는 건 결코 그래 등이 아니다. 이같은 소식이 한국 이북도민회에 전해졌고 한국측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스톤 고국방문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한 것. 한국방문을 고대하던 고국방문단 신청자들의 기대가 꺾이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고국방문단 신청자는 보스톤코리아에 전화를 걸어 “항간에 의하면 회장이 둘이라는데, 누가 진짜냐”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했다. 결국 고국방문단만 난처해진 것이다.

이병현 이사장에 따르면 이북도민회는 오는 20일까지 문제를 해결

하고 결정 사안을 한국 이북도민회측에 보고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보스톤 고국방문이 취소될지 아니면 무탈하게 진행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 회장은 “최대한 고국방문단 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려는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지만 참아오고 있었다. 20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북도민회는 이북출신자 또는 직계가족이 이북출신인 한인들을 위한 단체로 실형 이북도민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어린 후세들도 이북도민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되었다.

이북도민회의 가장 큰 행사인 고국방문단은 한국 이북5도민회가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고국방문 프로그램이다. 보스톤에서는 매년 6명의 신청자를 받으며 올해는 5명의 신청자가 5월 중순경 3박 4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최신작부터 인디까지, 보스턴 극장가 탐방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대인 기자 = 3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밖에 나가 봄기운을 만끽하기엔 날씨가 아직 쌀쌀하다. 아늑한 실내에서 째짤한 팝콘과 함께 영화 한 편 보는 것은 어떨까. 최신 개봉작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상영하는 보스턴 극장가를 소개한다. 고급스러운 시설의 럭셔리한 영화관에서 최신 개봉작을 본다거나 100여년 전통의 오래된 극장에서 이색적인 독립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하다. 상영일정은 각 영화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스트넛 힐 슈퍼럭스

55 Boylston St, Chestnut Hill, MA 02467  
617-658-5160  
showcasesuperlux.com



체스트넛 힐에 위치한 쇼케이스 슈퍼럭스(Showcase SuperLux) 극장은 이름만큼이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시설로 잘 알려져 있다. 다리를 올리고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넓고 편안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좌석마다 마련된 아이패드

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다. 슈퍼럭스(SuperLux) 입장료는 \$28이며 \$5짜

리 음료수 및 음식 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팝콘은 무제한이며 제공되는 아이패드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술도 주문 가능하며 6시 이후는 21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 한편, 보다 저렴한 라이트 럭스(LiteLux)의 입장료는 \$20로 \$5 쿠폰이 역시 포함되어 있다. 6시 이후 14세 미만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하버드 스퀘어 브래틀 극장

40 Brattle St, Cambridge, MA 02138  
617-876-6837  
brattlefilm.org

1953년부터 상영을 시작한 브래틀 극장(Brattle Theatre)은 보스턴의 전통있는 극장 중 하나다. 이 극장에서는 최신작부터 독립영화, 외국 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한다. 일반 티켓은 \$11이며 5시 이전 상영 영화는 \$9이다.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은 \$9이며 12세 미만 어린이는 \$8이다. 극장에서 맥주와 와인 등의 술을 판매하기도 한다.



▶쿨리지 코너 시네마

29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6

617-734-2501  
coolidge.org

1933년부터 브루클라인 쿨리지 코너를 지켜온 이 극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연극, 발레, 오페라, 인형극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브루클라인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극장으로 꼽힌다. 일반 티켓은 \$12이며 쿨리지 코너 시네마 멤버와 12세 미만 어린이는 \$9이다.



▶알링턴 캐피탈 극장

204 Massachusetts Avenue, Arlington, MA 02474  
781-648-4340  
feitheatre.com/capitol-theatre

새로 개봉한 영화는 보고 싶은데, 어린 아이 때문에 영화관을 가기가 곤란했던 엄마들에게 알링턴 캐피탈 극장(Capitol Theatre)을 소개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는 아기와 엄마를 위한 상영관이 제공된다. 영화 상영 시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소리도 약간 줄여 아기를 보는 엄마들에게 적합하다. 일반 상영관의 6시 이전 상영 영화의 티켓

은 \$7이며 6시 이후는 \$10이다. 3D영화는 \$2이 추가된다.



▶서머빌 극장

55 Davis Square, Somerville, MA 02144  
617-625-5700

somervilletheatreonline.com/somerville-theatre

서머빌 데이비스 스퀘어에 위치한 서머빌 극장(Somerville Theatre)은 1914년부터 연극, 오페라 등의 공연이 열리던 예술의 장이다. 수 차례의 리노베이션을 거쳐 현재의 극장이 탄생했지만 오늘날까지도 100여년의 전통이 극장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반 티켓은 \$10이며 65세 이상은 \$7이다. 한편, 6시 이전에 상영하는 영화는 \$7이다.

한편, 서머빌 극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제 15회 아일랜드 영화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다. 오스카 수상작인 부갈루 앤 그레이엄(2014) 등의 영화부터 아일랜드 독립영화 30편 가량이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애프터 파티가 함께 열리기도 한다. 페스티벌 입장료는 \$15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공인세무사 김창근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소프라노 홍혜경 5월 보스톤 독창회

피아니스트 블라드 이프틴카와 한국 및 독일 가곡 협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프리마돈나로 활동해 온 세계적인 소프라노 홍혜경의 독창회가 오는 5월 28일 목요일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조던 홀에서 열린다.

보스톤에서 첫 독창회를 갖는 홍혜경 소프라노는 이날 무대에서 슈베르트와 슈만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 R. 슈트라우스의 가곡과 한국 가곡(보리밭, 내 마음, 가고파, 동심초, 새타령)을 선보일 예정이다.

피아노 반주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줄리아드에서 음악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루마니아 출신 피아니스트 블라드 이프틴카가 맡았다.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플라시도 도밍고)"이자 "여전히 신선하게 빛나는 목소리, 아름다운 프레이징, 세련된 피아니시모(뉴욕 타임즈)"로 인정받고 있는 성악가 홍혜경은 1982년 한국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홍 씨는 1984년 제임스 레바인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홍혜경 씨의 독창회가 5월 보스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휘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티토 왕의 자비>에서 세르빌리아역으로 메트 오페라에 데뷔한 후 지난 30여년간 바르코에서 현대 오페라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370회 이상 선보였다.

소프라노 홍혜경의 독창회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 이사장 이충시)가 주최하며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후원한다.

연주회 티켓은 한미예술협회 홈페이지(www.kcscboston.org)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의 단체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기타 문의는 781-223-4411로 하면 된다.

이지(www.kcscboston.org)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의 단체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기타 문의는 781-223-4411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조던 홀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bostonkorean@hotmail.com

# 재즈 피아니스트 전혜림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과 협연

티켓 판매하자마자 매진, 200여명 대기명단 '성황' 버클리 교수진 밴드와 호흡 맞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버클리 음대 피아노과 교수이자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 전혜림 씨가 지난 14일 토요일 유명한 재즈 색소폰 연주가이자 작곡가인 베니 골슨(Benny Golson)과 협연을 가졌다.

웬슬리 칼리지(Wellesley College)의 주에트 아트 센터(Jewett Art Center)에서 열린 이날 연주회 티켓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되었으며 200여명이 대기 명단에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피아니스트 전혜림 씨는 "베니 골슨은 (제가) 버클리 학생이었을 때부터 알게 되어 지금까지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신 중요한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 살아있는 재즈 거장 베니 골슨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전 씨와 버클리의 교수진들이 이날 밴드로 베니 골슨과 협연을 펼

쳤으며 베이스와 드럼은 각각 론 마흐디와 랄프 피터슨 교수가 함께 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베니 골슨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Whisper Not' 과 'I Remember Clifford', 'Stablemates' 등이 연주되었다.

재즈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은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The Terminal)의 숨은 주인공이자 영화 삽입곡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86세의 나이로 현재까지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전혜림 씨(버클리 음대 교수)

## 새생활센터 2015년 첫 무료진료 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오는 21일 토요일 2015년 첫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매사추세츠 주민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제공되는 이날 서비스는 무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이 포함된다. 내과는 처방전

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을 한다. 환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찰을 할 예정이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은 이날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전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와 체지

방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진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317-374-4786)에게 하면 된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및 진료 안내** 일시: 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Boston Korean SDA Church(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윤동주 70주기 추모공연 폭설로 일정 변경

### 21일 토요일 보스톤한인교회서 공연 열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2월 14일로 예정돼 있었던 윤동주 70주기 추모공연이 폭설로 인해 오는 3월 21일 토요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공연 장소는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로 같다.

윤동주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한인 청년 밴드 '눈오는 지도 (snowing map)' 는 버클리 음대, 맨해튼 음대, 뉴욕주립대 등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청년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팀 리더 겸 작곡가인 한은준(기타) 씨와 박수진(노래), 정제니(해금), 김성희(피아노), 김효영(베이스), 차승현(드럼) 씨 등 6명이 이날 무대에 오른다.

한은준 씨는 "전 세계가 비인간적인 전쟁의 광기로 휩싸여 있던 2차 세계대전의 끝 자락인 1945년 2월 16일,

조선독립과 민족문화 유지라는 죄목으로 일본의 감옥에서 만 27세의 나이로 죽어간 윤동주를 기리기 위해 추모공연을 마련한다"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 했던 이들을 기억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윤동주 70주기 추모 공연은 아름다운 윤동주(이사장 이승중), 보스톤한인교회, 한미문화재단(KACF), 뉴욕장로교회, 까마귀 스튜디오가 후원한다.

광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snowingmap@gmail.com 혹은 201-835-8692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윤동주 추모 공연이 오는 21일 토요일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일시: 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ECC 채플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dyoo9146@bostonkorea.com

# 보스톤 산악회 제4차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회장 현정원)가 오는 3월 28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초코루아(Mt. Chocorua)로 정기산행을 간다.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3.5(보통)이며 산행 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다. 이날 산행은 A, B, C 세 조로 나뉜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마이크로 스파이크나 크랩폰, 게이터, 방한복, 방풍의, 장갑, 모자, 헤드램프, 트랙킹 폴,

식수 및 간편 중식이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올스톤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6시 30분,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 15분이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인 3월 26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조(A, B, C)와 집결지, 차량 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정보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운행차량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경

우, 산행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차량배정을 하게 된다. 많은 회원들의 차량운행 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차량 제공 혹은 대리운전이 가능하면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나 다음 번호 (617-780-6521)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첫 교수 선교사 파송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해 가을 평신도 신학원을 출범시킨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가 지난 14일 토요일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첫 교수 선교사를 파송했다.

가을 학기 동안 노스와 센트럴 클래스로 흩어졌던 학생들과, BNI 강사, 스태프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BNI 선교원이 그동안 준비해온 선교사 파송이 진행되었다.

블리비아로 이번 6월에 파송되는 첫 교수 선교사는 장영규 박사로서 한 주 동안 산타크루즈 지역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구약개론을 가르치게 된다.

파송에 앞서 박찬수 선교원장은 "교육과 선교가 BNI의 사명 선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며, 이번 교수 선교사 파송이 그 선교의 부분을 실천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친교의 시간과 4월에 개강하는 봄학기 수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어졌다. 노스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은 보스톤 서부장로교회 정우석 집사는 " '구약 꿰뚫기' 와 '기독교 예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을 통해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도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고 전했다.

유경렬 사무처장의 인도로 진행된 대담 시간에서는 참석 패널들이 보스톤에서의 신앙생활이 주는 이미지로 광야, 훈련, 전문성 등을 들었으며 이러한 속에서 교회와 성도간의 연합의 유익, 그리고 연합된 전문 신학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일치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BNI에 대한 문의는 유경렬 사무처장(781-439-1840)이나 권복태 재무이사(781-408-9430)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한미노인회 효도잔치 행사 공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 효도잔치가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메드포드 소재 한식당 청기와에서 열린다.

이날 효도잔치는 청기와 김영기 사장이 한미노인회 회원 전체를 초대해 열리는 행사다. 유영심 회장은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하면 되겠다" 며 회원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행사 문의는 한미노인회(978-994-5490 혹은 978-902-8305)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장소: 청기와 레스토랑 (27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bostonkorean@hotmail.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Cell 617.694.0985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재정악화 보스톤 공립학교 무상급식 선택옵션 축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공립학교가 올해 약 4천 2백-5천1백만불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자 각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국의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선별적급식을 주장해 무상급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스톤 공립학교의 급식 축소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보스톤 공립학교는 급식 축소 방안으로 학생들의 아침 식사 중 따뜻한 식사를 일주일에 두번으로 줄이고 점심 메뉴 선택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새로운 급식 축소 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침 식사는 우유와 시리얼, 요거트 또는 머핀 그리고 과일로 구성된다. 점심의 경우 각 카페테리아는 2-3가지 옵션으로 제한된다. 피넛 버터젤리 샌드위치는 하루 종일 구비되어 있을 예정이며 학교 관계자들은 치킨 너겟, 그릴드 치즈, 미트볼 서브, 햄버거, 파스타, 치킨 샌드위치 등 중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메뉴를 고르게 된다.

학생들이 무엇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음식 메뉴가 있는 경우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메뉴의 제한은 상당한 예산을 절약해 줄 수 있다.

보스톤 공립학교는 이 같은 메뉴 제한을 통해 현재 약 6만6천여명 전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료 급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선택 제한 안은 다음주 학교위원회에서



보스톤 공립학교가 각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이 같은 음식 선택 제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 보스톤 공립고등학교 학부모였던 말레나 로즈 씨는 “가장 약한 계층에 있는 학생들 지원을 줄이는 예로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케임브리지 공립학교 음식서비스 디렉터인 멜리사 허니우드 씨는 음식 메뉴 축소가 반드시 절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과다한 음식제조가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스톤 학교위원회에 서면 제출된 허니우드씨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은 결코 제공되지 않는 건강한 음식

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치킨 너겟, 햄버거, 핫도그 등 아이들 메뉴만 상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건강 음식에 질려서 먹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양기준에 따른 건강식이 오히려 지난 2012-2013년 동안 전국적인 음식 낭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일부 보스톤 공립학교 학생들은 현재의 무상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 학교 밖에서 음식을 구입해 먹고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금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17일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대중들의 의견 수렴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법안은 기존의 담배와 동등한 제한을 청소년 상대 판매에 적용한다. 그동안은 약 3분의 2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왔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이번 법안 제정으로 매사추세츠주는 미국내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42개주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의 매사추세츠 법안은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수년전에 시판된 전자담배는 급속도로 시장이 확산되었고 결국 대형 담배 제조회사들도 전자담배 제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미 식품의약국(FDA)도 현재 규제조치를 고안 중이다.

힐리 법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 매사추세츠 내에서 전자담배도 아이들의 경우 담배와 똑같이 규제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이메일

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23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1-2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전자담배의 무료 배포를 금하고 직접 대면 판매가 아닌 인터넷 판매를 금했다. 또한 모든 전자담배를 점포 직원들만 만질 수 있는 곳에 위치시키도록 했다. 또한 전자담배 제품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판매는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현재 많은 전자담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안은 청소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필수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니코틴 용액에 열을 가해 기화되는 증기를 흡입하는 장치다. 전자담배 옹호자들은 이 전자담배가 2차 흡연의 위험이 없어 흡연의 안전한 대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의 니코틴 중독을 초래하며 현재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전자담배는 바나나 또는 버블검 등의 향을 가미해 팔고 있다.

미 질병통제센터가 2011년과 2012년 2차례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생들의 전자담배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보스톤 올림픽 유치 경제 효과 수십억 달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24년에 보스톤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 매사추세츠 주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림픽 개최 전에 6년 동안 매년 4천 개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수만 개의 임시직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유매스 도내후 연구소는 보스톤 재단의 후원을 받아 2024 보스톤 올림픽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진행된 최초의 포괄적인 분석 보고서로 18일에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보스톤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기에 앞서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올림픽을 조직하고 주최하는 단체가 민간부분에서 얼마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비용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낭비되는 위험으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올림픽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공사를 통해 40억 달러의 경제 가치가 창출되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4년



보스톤 올림픽 스타디움 예상 그림

에 5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부수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한 관광 수입이 5억 1천 4백만 달러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림픽에 필요한 건설 공사에는 21억 달러가, 올림픽 경기를 운영하는 데 29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고서는 이 비용이 매사추세츠 외부에서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건설 공사 및 올림픽 개최가 직접적으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회사들의 이윤을 증가시킨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림픽을 위한 공사와 경기 운영을 위한 지출은 분명 매사추세츠에 확실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민간부분의 투자와 외부에서의 자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과도하게 비용이 증가할 위험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공부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지난 1월, 보스톤을 올림픽 개최를 위한 미국의 후보 도시로 선정하였다. 보스톤은 2024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로마, 함부르크, 파리 등의 도시와 경쟁을 벌이게 된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2017년에 개최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 MA주 5월까지 체납 세금 자진 신고 기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금 체납자들이 추가 벌금을 물지 않고도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국세청은 오는 5월까지 체납 세금 자진 신고 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체납 세금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60일 동안 계속되어 5월 15일에 종료된다.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했던 모든 세금이 신고 대상이다. 약 2만 4천여 명의 세금 체납자들이 이번 주부터 주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세금에 대한 통보와 벌금 면제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 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통보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과 자진 신고 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면제될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체납 세금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제안하고 매사추세츠 의회가 승인하여 성사되었다. 베이커 주지사는 2014-15 회계연도에 발생할 7억 6천 8백만 달러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주 의회는 체납 세금 자진 신고를 통해 1천 8백만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세금 자진 납부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기존에 부과된 모든 벌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다만 이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벌금만 납부하지 못한 사람, 주 정부와 체납 세금 조정 신청에 합의한 사람, 세금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이번 체납 세금 자진 신고 기간에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체납 세금 자진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사추세츠 주 정부 웹사이트 (www.mass.gov/dor/amnes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5월 15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진한 홍삼파워 홍삼정**  
6년근 홍삼을 최적의 조건으로 달여 그 진액만을 농축시킨 고순도 상품으로,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 홍삼상품입니다.  
240g / 120g / 30g

기력회복  
감기예방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세요.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순수 홍삼의 품미  
**홍삼 추출액**  
고품질 6년근 홍삼을 사용하여 110여년의 축적된 기술로 뿌리삼 내용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담아낸 100% 순수 홍삼 제품입니다.  
**30포 (한달분)**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미 백악관, 네타나후 총선 승리 축하앞서 우려 표명

(클리블랜드/워싱턴 로이터=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이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데 대해 낯선 비판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네타나후와 전화 통화에서 리쿠드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인사를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백악관은 네타나후의 중동 정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네타나후 총리가 '아랍인들이 결집해 투표소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네타나후 총리가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을 소외하는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800만명의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아랍계 인구는 20%에 달한다. 전날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아랍계 정당인 조인트 리스트는 제3정당으로 올라섰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네타나후 총리가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두국가 해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두국가 해법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

또 네타나후 총리의 승리로 이란 핵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타나후 총리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그의 승리로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나후 총리는 2주전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이란 핵협상을 '나쁜 협상'이라고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일 내에 축하 전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나후 총리는 선거 막바지 보수층 결집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예루살렘에 정착촌

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은 선거 결과에 반영돼 네타나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강경 정책은 두 국가 해법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을 유도해온 미 행정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크리스 페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두 국가 해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중재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 "북미 최대 장로교단, 동성결혼 승인하기로"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동성간의 결혼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장로 교회 (Presbyterian Church USA·PCUSA)는 이날 결혼의 정의를 수정하는 방안에 산하 171개 노회(장로교단 내 지역 자치 관리 기구) 가운데 86개 이상이 찬성해 개정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뀌는 결혼의 정의는 "남은 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기로 하는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며 전통적으로는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된다.

바뀐 내용은 PCUSA 헌법의 일

부인 규례서(Book of Order)에 포함되며 오는 6월 21일 발효된다.

PCUSA 소속 목회자들은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사실상 동성결혼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동성결혼식 집례를 거절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PCUSA 내 보수 노선을 택하고 있는 교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CNN은 전했다.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장로교단인 PCUSA는 176만200명의 교인을 자랑하지만 최근 들어 보수 성향 교회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lchung@news1.kr

## 토이저러스 타임스퀘어 떠난다... "임대료 너무 비싸"

(뉴욕 블룸버그=연합뉴스) = 세계 최대 장난감 전문 체인점인 미국 토이저러스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내년초 뉴욕 타임스퀘어의 플래그십 매장을 옮길 계획이다.

맨해튼 브로드웨이 1514번지에 위치한 토이저러스 매장은 면적이 11만

평방 피트(1만200㎡)로 단일 세입자가 쓰기에 너무 넓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빌딩 임대업체인 쿠시먼앤웨이크필드의 브래들리 맨델슨 부회장은 "임대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며 토이저러스의 부담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 토이저러스는 지난 15~16년간 매우 우량한 세입자였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매체인 커머셜 옵서버는 17일(현지시간) 토이저러스가 타임스퀘어 건너편에 위치한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내 임대 매장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이저러스가 매장을 이전기로 한 것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타임스퀘어 지역의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준다.

브로드웨이와 7번 애비뉴가 만나는 타임스퀘어의 이른바 '보우타이' 구역 상가 임대료는 1층 기준 2011년 평방 피트당 평균 1천433 달러였으나 작년말에는 2천317 달러로 올랐다. 맨델슨 부회장은 토이저러스 타임

스퀘어 플래그십 매장의 명물인 실내 회전관람차와 공통 모형은 토이저러스 소유이기 때문에 새 매장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이저러스의 린다 코너스 홍보책임자는 "타임스퀘어 매장의 임대계약은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갱신 여부를 검토해왔다"며 "새 매장은 아직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jamieh@yna.co.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플랜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교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교가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 미 '치킨 에볼라' 공포, 치명적 AI 변종 H5N2 아칸소서 확인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의 주요 가금육 생산지역인 남부 아칸소주(州)에 이른바 '치킨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아칸소주 정부는 미 농무부(USDA)와 공조해 민간 양계장과 방목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치명적 조류인플루엔자(AI) 변종인 H5N2는 지난주 처음으로 아칸소에서 확인됐다.

H5N2변종은 감염 지역 일대의 가금류를 48시간이내로 거의 모두 죽일 만큼 강력한 바이러스로 알려지면서 '치킨 에볼라'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현재 아칸소주는 변종 감염이 확인된 농장에서 반경 10km이내에 어떠한 가금류도 이동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감염 확인된 농장의 출입하는



15일 미국 농무부(USDA)가 캔자스주에서도 "변종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

모든 트럭과 관계자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받는다.

아칸소주는 방역 기준을 강화해 검역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AI전염 여부 검사 실시 횟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 강화는 멕시코를 비롯해 미국

산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USDA는 중부 캔자스주에서도 H5N2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고 미 중부를 가로지르는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kirimi99@news1.kr

## 미 캔자스주서 치명적 '변종 AI' 감염 확인...철새 이동경로와 동일

(시카고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 농무부(USDA)가 미국 중부 캔자스주에서도 처음으로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USDA에 따르면 AI의 일종인 H5N2의 변종인 이 바이러스가 미국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확산했다는 점도 이번엔 처음으로 확인됐다.

H5N2 변종은 캔자스주 캔자스시 외곽 리브워스카운티에 있는 한 농가의 닭과 오리들에서 발견됐다.

USDA가 H5N2 변종의 감염 사례를 처음 확인한 건 지난 13일이며 이 같은 감염이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최초다. 철새 이동 경로는 미국을 남부 텍사스에서 북부 몬태나까지 가로지른다. 캔자스주 관리들은 리브워스카운티의 바이러스 감염 농가를 격리하고 감염이 확인된 가금들에 대해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살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금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리브워스카운티 지역 주변으로 격리 지대가 설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캔자스주의 빌 브라운 동물 보건 담당관은 "우리는 H5N2 변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USDA는 H5N2 변종에 대해 미국 국내 교역업체들과 국제 동물보건기구에 알릴 예정이다. 미국의 가금류

를 수입하는 주요 업체들은 이미 최근 같은 AI 감염 사례가 나타난 다른 주의 가금류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주 USDA는 아칸소주에서 H5N2 변종에 대한 최초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

USDA는 최근에 발견된 이 바이러스가 기러기들에게서 발병한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기러기들이 미국 중서부의 AI를 확산시킨 원인이라는 견해에 회의적이다.

미국 질병 통제 및 방지 센터는 USDA의 성명에 대해 이번 H5N2 변종이 인간에게 전염될 확률은 낮다고 밝혔다. acenes@news1.kr

# 공화당 잠룡 랜드폴, 다음달 대선 출마 공식선언 할 듯

(시카고 로이터=뉴스1) 정은지 기자 = 공화당 잠룡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다음달 7일 공식적으로 2016년 대선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MSNBC가 캠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는 공식적인 선언이 될 것"이라며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 의원은 내년 대선에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번째 주요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잠룡인 쟁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선거자금을 모으는 정치활동위원회를 이미 발족

했으나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크리크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도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이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음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52세의 폴 의원은 대선 경쟁에 뛰어든 것만으로도 폴 전 텍사스 하원 의원의 아들이다. 그는 최근 보수 세력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 내에서는 그의 광범위한 호소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jjung@news1.kr



다음달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랜드폴 공화당 쟁터키주 상원의원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 781.391.6200

#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 7일 오픈

## Bliss Image

FULL SERVICE DIVERSE SALON AND SPA

- 남녀헤어 (컷, 펌, 케라틴 트리트먼트, 하이라이트, 칼라, 코팅)
- 피부관리 (All types Facials and Microdermabrasion)
- 네일 (Manicure, Pedicure, Gelnail and Spa)
- 제모 (Waxing 원하시는 어느 부분이든 됩니다)
- 속눈썹 연장 (Lasts up to 3 months, Water Resistant)
- 바디 마사지 (Swedish and Deep Tissue massage)
- 영구화장 (눈썹, 아이라인, 입술, 점 등등...)

---

영구 화장  
 자연스럽고 영원한 아름다움  
 영구화장으로 결점을 줄이고 자신감은 높이고...

속눈썹 연장 지도해 드립니다  
 클래스 종료후 수수료 드립니다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 미 연준 '인내심' 삭제...금융위기 후 첫 금리 인상 9월에 '무게'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하향...  
"참을성 없어진 것 아니다"

첫 인상 예상시점 늦춰지며  
뉴욕증시 상승, 달러 약세

(서울=뉴스1) 최홍일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8일(현지시간) 이르던 올해 중반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 긴축에서 두르리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날 연준은 이를 동안 열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내놓은 성명에서 금리의 향방을 알리는 선제적 지침(포워드 가이드)인 "(금리 인상전에) 인내심을 발휘할 것(be patient)"이라는 문구를 제거해 이르던 두어 달 뒤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에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인내심"이란 문구는 두 차례 통화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 뜻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연준이 3월 회의에서 "인내심" 문구를 떼어내면, 오는 6월 16~17일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간주해왔다.

하지만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내심"이란 말을 떼어냈다는 것이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준은 2008년 12월 이후 제로(0)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옐런 의장은 "재차 강조하고 싶다. 오늘 선제적 지침을 변경한 것이 위

원회가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기준금리)의 첫 인상 시점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변경으로, 6월에 반드시 금리가 인상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6월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준은 경기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하면서 핵심적 일일 대출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도 낮췄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dot plot)를 보면, 17명의 FOMC 위원 가운데 15명이 올해 첫 금리 인상을 전망한 가운데 2015년 말 전망치 중간값은 지난해 12월에는 1.125%였지만 이번에는 0.625%였다.

금리 및 경기 전망의 하향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비둘기파(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 중시)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종전 6월보다 가을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인상 시점 연기 가능성에 시장은 환호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27%, S&P 500지수는 1.21%, 나스닥지수는 0.92% 올랐다. 달러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돌았다. 달러 약세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분기 경제 전망에서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성명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비닝 스파크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크레이그 디스뮤케는 로이터통신에 "물가나 임금 상승 압박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며 "6월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가능성도 낮다. 9월이 첫 금리 인상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달이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다. 일단 올해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차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날 로이터가 미국 국채거래에 참여하는 대형 금융기관인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s)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곳 가운데 12곳이 첫 금리 인상 시점으로 9월이나 그 이후를 들었다. 6월로 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연준의 성명은 어떤 결정이라도 앞으로 나올 지표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올 하반기에 금리를 조정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했다.

성명은 "FOMC는 노동시장이 더욱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 목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할 때,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옐런 의장

은 지난달 의회 증언에서 때가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FOMC의 손을 자유롭게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세심한 선제적 지침을 시장에 제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매번 회의 때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준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여러 논란에 직면해 있다. 실업률은 연준의 예상치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지만 취약한 글로벌 경기 등을 반영해 인플레이션은 33개월 연속으로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돌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옐런 의장은 "기계적인 대답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에 새로운 압박이 등장하고 있다. 연준이 성명에서 인정했듯이 달러 강세가

미국 수출에 하향 압력을 더하고 있다.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에도 압박이 된다. 통화위원들은 이 같은 점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례로 연준이 FOMC를 끝마치기 몇 시간 전에, 스웨덴 중앙은행 리스방크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25%로 낮췄다. 이 같이 상이한 통화 정책은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옐런 의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추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달러도 그중 하나이다. 수출 증가율이 약화됐는데, 아마도 달러 강세가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달러 강세는 수입물가도 잡아 끌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유가 약세 지속...재고·공급과잉 우려 7일째 하락

(뉴욕 로이터=뉴스1) 국종환 기자 = 국제 유가는 17일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 정규 거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자거래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 전자거래에서 정규 거래 종가 대비 배럴당 0.81달러(1.86%) 떨어진 42.6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WTI는 앞서 정규 거래에서 전자거래 대비 0.9% 떨어진 배럴당 43.46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

물 가격은 런던 ICE 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정규장 대비 0.26달러(0.51%) 떨어진 53.23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자거래일부터 거래된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은 정규장에서 7센트 오른 배럴당 53.51달러를 기록했으나 곧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유가는 미국 석유 비축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원유 정규 거래 마감 이후 발표를 통해 지난주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105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380

만 배럴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API의 추산이 맞다면 미국의 전체 원유 비축량은 4억5000만 배럴에 달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8일 비축량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API와 EIA의 조사 결과가 틀릴 때도 있으나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비아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란이 핵협상 타결 후 원유 수출을 늘리기를 원한다는 소식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면서 유가 하락



폭은 다소 제한됐다. 이날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4% 하락한 99.65를 기록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1% 상승한 1.0588달러 선을 기록했다.

뉴욕 에너지관리연구소(EMI)의 셸 우맥은 "모든 자료들은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지나치게 많고 또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서 "유가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hkuk@news1.kr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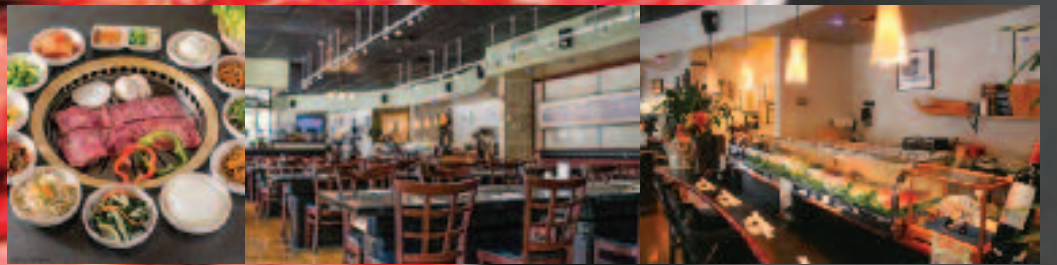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무코다  
트리트먼트**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3자회담 하루만에... 청-야, '경제실패' 공방

### 청 "근거없는 위기로 경제활성화 역행"

### 문 "경제 현실 너무 몰라"

(서울=뉴스1) 박상휘, 진동영 기자 = 청와대와 야당이 3자 회담으로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단 하루만에 경제정책 실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후 공동발표문까지 내놓아 향후 정국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회동 하루만인 18일 청와대와 야당이 경제정책 실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이 같은 관측을 무색케 하고 있다. 발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불통의 대립구도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신경전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근거없는 위기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

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가 전날 3자 회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청와대는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고, 고용지수도 지난해 12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며 "최근에는 주택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 코스닥 시장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란 표현은 지나쳤다"며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국민이 인식하면 경제주체들에게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거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발언이었다"며 "당과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경제활성화 노력을 해서 우리 경제는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청와대와 여당 공세에 이날 지역 최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위원회 개최를 위해 경남을 찾은 문 대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 대표는 "청와대에서 통계자료 수치만 내놓으면서 '경제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우긴다면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국민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것"이라며 "그런 불통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들 살

림살이가 좀 나아졌는지 이런 것은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냐"며 "지금 다녀보면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정부 여당은 마치 문 대표가 근거없는 위기로는 부추겨 경제활성화에 찬물 끼얹고 있다고 단정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호도하

고 있다"며 "민심을 모르는 정권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또 "3자회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안을 공식 요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식화하기 힘들다고 거부했다"며 "오늘 모습만 보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청사진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sanghwi@news1.kr

# Cheap or Quality?

##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b>Level 5</b>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b>Level 4</b>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b>Level 6</b>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R. 20TH - MAR. 26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and Pinterest!

## SPRING CLEAN-UP SALE!

스마트와 함께 상쾌한 봄맞이!

Clean-up with the **biggest Spring deals** of the year. Make sure you get a head start with Spring this weekend at Hmart!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상쾌한 봄의 맛을 즐기세요!

**Ginger 생강**  
lb. **\$1.99**

**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lb. **\$11.99**

**Flora Bathroom Tissue 피오라 화장지**  
24rolls/pkg. **\$8.99**

**하모니 앞치마 Harmony Apron**  
ea. **\$9.99**

##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MASSACHUSETTS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Until April 12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April 13th, 2015 @ 4pm)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1st Prize: TOYOTA RAV 4 XLE - \$25,000 + value (1 winner)**  
 2nd Prize: COCO Cosmetics Gift Set - \$499.99 (1 winner)  
 3rd Prize: AMORE Cosmetics Gift Set - \$99.99 value (1 winner)  
 4th Prize: Hmart Food Court Gift Certificates Pack - \$50 value (20 winners)  
 5th Prize: JUNG KWAN JANG RG Latte Box - \$20 value (10 winners)  
 6th Prize: HARU HARU Milled Rice 15 lbs. (50 winners - 25 per store)

**TOTAL 83 WINNERS!**

No purchase necessary to win. You may also simply sign up for a Hmart Smart Card in order to receive (1) raffle ticket. Must be a legal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o win. All taxes and fee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vehicle winner. All Hmart employees, family, related vendors, & tenants of All Hmarts are ineligible to win. You may email us at [marketing@hmart.com](mailto:marketing@hmart.com) for more details.

## 중가집

무료 증정 이벤트

**PURCHASE SELECT CHONGGA ITEMS AND RECEIVE A FREE GIFT!**

MAR. 21st - MAR. 22nd at All Hmart MA Stores

중가집 맛김치 2.2 LBS. 구매시, 중가집 옛맛 간장 고추장 5.3oz. 무료 증정!

중가집 포기김치 2.2 LBS. 구매시, 중가집 옛맛 간장 마늘종 장아찌 5.3oz. 무료 증정!

PURCHASE CHONGGA'S MARI KIMCHI (2.2 LBS.) & TAKE HOME A FREE CHONGGA'S PEPPER PICKLED IN SOY SAUCE (5.3OZ.)

PURCHASE CHONGGA'S POGGI KIMCHI (2.2 LBS.) & TAKE HOME A FREE CHONGGA'S GARLIC STEM IN SOY SAUCE (5.3OZ.)

## THE MUST-HAVE SHRIMP OF THE SEASON

당백한 새우와 마늘향의 조화! 에스칩스 강력새우맛은 느껴보세요!

<p><b>FRI./SAT./SUN./MON ONLY</b> 20/21/22/23 ONLY</p> <p>Singo Pear 신고배 3pcs/pkg. <b>\$7.99</b></p>	<p><b>FRI./SAT./SUN./MON ONLY</b> 20/21/22/23 ONLY</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b>\$1.49</b></p>	<p>Pack of Garlic 팍마늘 5pcs/pkg. <b>\$2.99</b></p>	<p><b>USDA ORGANIC</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b>\$3.99</b></p>	<p><b>FROZEN</b></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살 슬라이스 lb. <b>\$7.99</b></p>	<p><b>FRESH</b></p>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7.99</b></p>	<p><b>FRESH</b></p> <p>Whole Chicken 통닭 lb. <b>\$1.79</b></p>
<p><b>FRI./SAT./SUN ONLY</b> 20/21/22 ONLY</p> <p>Salted Pompano 자반 방어 lb. <b>\$5.99</b></p>	<p><b>FRESH</b></p> <p>White Perch 방어 lb. <b>\$1.99</b></p>	<p><b>FROZEN</b></p> <p>SANFORD Half-Shelled Mussels 반칸 홍합 2 lbs./pkg. <b>\$7.99</b></p>	<p><b>FROZEN</b></p> <p>Premium Salted Yellow Croaker 영광굴비 5.5 lbs. <b>\$34.99</b></p>	<p><b>FROZEN</b></p> <p>TONGTONGBAY Fish Tofu 통통배 두부어묵 8.46oz. <b>\$3.99</b></p>	<p><b>FRESH</b></p> <p>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s. <b>\$15.99</b></p>	
<p>NISHIKI Premium Med. Grain Rice 니시키 쌀 15 lbs. <b>\$14.99</b></p>	<p><b>REST OF</b></p> <p>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2.64oz. x 6ea./pkg. <b>\$4.99</b></p>	<p><b>REST OF</b></p> <p>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b>\$9.99</b></p>	<p><b>주말시식쿠폰</b> FRI./SUN. SAMPLING EVENT</p> <p>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삼계탕 1.75 lbs. <b>\$9.99</b></p>	<p><b>주말시식쿠폰</b> SAT./SUN. SAMPLING EVENT</p> <p>CHORIPDONG Hurricane Rice Cake 초립동이 허리케인 떡볶이 10.58oz. <b>2\$3</b></p>	<p>SEMPIO Jin Soy Sauce 진씨표 진간장 진스 60.8fl.oz. <b>\$4.99</b></p>	
<p><b>주말시식쿠폰</b> FRI./SUN. SAMPLING EVENT</p> <p>HAIOREU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s. <b>\$4.99</b></p>	<p>NESTLE Matcha Kit Kat 네슬레 녹차 킷캣 4.7oz. <b>\$5.99</b></p>	<p>HAITAI Matdongsan Snack 해태 맛동산 14.8oz. <b>\$2.99</b></p>	<p>NATURE'S YOKE Cage-Free Grade A Medium Brown Eggs 네이처스 요크 미디움 갈색 달걀 doz. <b>\$1.99</b></p>	<p><b>FROZEN</b></p> <p>GLASSLOCK Glass Jar with Tumbler Set 글라스락 레트로 물병 &amp; 랜치 텀블러 세트 U-901/4pcs/set <b>\$5.99</b></p>	<p>ZOJIRUSHI Lunch Jar Set 조지루시 도시락 SL-MEE07AB/Aqua Blue/pkg. <b>\$29.99</b></p>	

# '사드' 도대체 뭐길래...한·중·미 외교 논란까지?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미국의 고(高) 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신경전을 넘어 미묘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뭐길래...

한국군의 다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드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지난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 관해 그간 발표된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의 주요 발언과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 사드 한반도 배치에 왜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는지 등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사드란 미국의 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로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입니다. 대륙탄도미사일(ICBM)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올라 먼 거리를 타격하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사드는 탐지거리 300~1800km의 레이더를 가지고 사거리 200km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 최고 15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합니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는 사드 요격미사일로 파괴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하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사드탄(요격미사일), 6개의 발사대, AN/TPY-2 레이더, 화력통제부 및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드 포대에 포함된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거리가 넓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6일 "미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한반도에 적합하지도 않다"며 "고고도 및 중고도 요격미사일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당시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하지 않고 요격고도 40km 이하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던 상태였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패트리엇 PAC-2 요격미사일을 PAC-3급으로 개량하고 국산 L-SAM(장거리), M-SAM(중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인데 개발완료 시기는 2020~2022년쯤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해명을 통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사드배치 문제를 재점화시킨 것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2014년 5월 8일)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같은 해명을 통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사드배치 문제를 재점화시킨 것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2014년 5월 8일)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014년 6월3일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며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지는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드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구매해 배치할 의사는 없으나 주한미군이 전력상 필요에 의해 자기를 예산으로 배치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언론에 흘리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로버트 워크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해 9월 30일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중인 바도 없다"고 일체 부인했습니다.

이같은 '밀당'이 이어지던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올해 2월 11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에 관한 그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3NO'였습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한 바가 없고,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는 것. 우리 국익을 최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겠다는 게 지금껏 이어진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벌어진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회담 사건 이후 여론 일부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다"며 이달 중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위협

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1일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주한미군이 지난해 한국에서 사드배치 부지 실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이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서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불편한 심기'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이 아닌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며 "중한 관계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불편한 입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 정부 등의 발언들만 모아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 되는 것 아니냐는 것과,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고 운용하면 비용면에서 걱정이 없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 구매를 요청할 경우 사드 운용에만 수조원이 투입되는 등 비용도 크게 부담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외교적 발언권이 커져 중국에 외교적 부담이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간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정부 예산을 들여 사드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고, 주한미군의 자체적인 배치에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밝혀왔

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중 사이에 긴 한국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에 한국의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쩍 공을 들인 대중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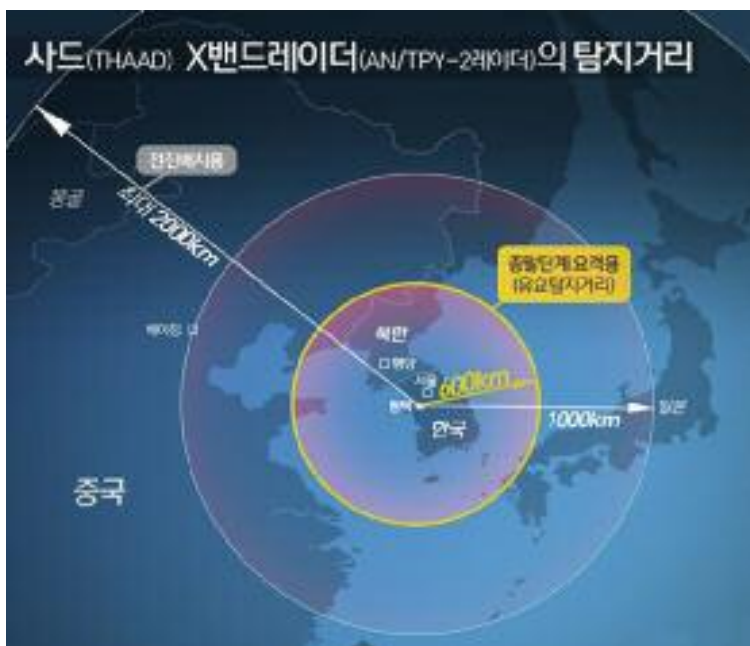
사드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전략적 모호성'을 두고 비판이 잇따릅니다. 용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나친 눈치보기에 혈맹관계인 미국은 미국대로 섭섭해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미국 편 들래, 우리 편 들래' 식의 압력을 받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니까요. 그나마 최근 들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더 구체화되는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들의 사드 반대와 외교적 관계를 벗어나 내정간섭으로까지 비춰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호성'만을 고집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나섰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드 배치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사안의 성격,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국익에 따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한마디로 주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중국이든 미국이든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hm3346@news1.kr



사드(THAAD) X밴드레이더(AN/TPY-2레이더)의 탐지거리, 뉴스1 제공 -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 2년간 이어진 한-미 '밀당' 지난 2013년 10월 한국 군이 다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해 사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사드 논란이 점화됩니다. 그러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달

지난해 6월 대정부질문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7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각각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중국 다시 사드반대 압박...한국의 사드·AIIB 전략적 선택은

중 류젠차오 방한해 외교채널과 접촉  
같은 날 미 러셀 차관보도 입국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중국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을 놓고 우리나라가 세계 2대 강대국(G2) 미중 사이에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16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우리 측 이경수 차관보 간에 한중 외교차관보 협의가 열렸고 오후에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차관보급 협의는 이달 하순경에 예정돼 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이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한국의 AIIB 참여를 요청하는 중국의 입장이 다시 개선되는 무대였다.

류 부장조리는 이 차관보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한국 측이 중요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사드의 어떤 부분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또 AIIB와 관련 "AIIB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 측

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한국 측은 가입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류 부장조리는 중국이 추진하는 AIIB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도 거듭 요청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AIIB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중 양측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듯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한·중 간 공식(논의) 의제나 현안이 아니다"며 "이날 면담에서도 레이더가 문제인지, 미사일 요격체가 문제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기본적인 사항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드 문제는 한·중 간 협의해 진행될 문제가 아닌 우리가 국익을 바탕으로 결정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류 부장조리는 이 차관보와 면담 후 오찬을 함께 했으며 오는 18일 일본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경수 차관보와의 한중 외교차관보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로 건너간다. 이런 가운데 러셀 차관보가 이날 방한하는 것도 사드 배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러셀 차관보의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지난 5일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위문하는 것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를 그대로 믿고 있는 전문가들은 없는 듯하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러셀 차관보는 우리 외교부 채널과 만날 경우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안중근 기념관을 하얼빈에 건립하는 등 한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온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17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이경수 차관보와 만날 예정인데 중국 측에서는 이 면담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 더해 AIIB 한국 참여 여부도 미·중 간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기존에는 미·일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역대 ADB의 총재는 모두 일본인이 맡았었고, 미국은 이를 지원사격하며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중국인 주도한 AIIB에 이미 22개국이 참여를 결정지었고 최근(12일) 영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입을 결정한 데 이어 다음날인 13일 호주

가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에게는 도전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AIIB 참여문제와 관련, "중국 측은 (이 차관보와 면담에서)한국이 창립멤버로 들어오길 바란다는 요지의 언급이 있었다"며 "경제적 실익의 문제나 지배구조, 은행으로서 요건 문제를 검토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17일 러셀 차관보와 우리 외교부 간 면담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한국을 사이에 두고 당분간 미·중 간에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unjam@news1.kr

## 유승민, 청안보·비서실장·국방장관과 '사드' 협의

"정부 '사드' 전략적 모호성  
탈피 지시"

(서울=뉴스1) 진성훈, 유기림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THAAD)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및 국방부와 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최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각각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는 전화 통화로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와 이 실장은 사드 문

제뿐만 아니라 현안과 관련해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가 사드 문제를 두고 "정부·청와대와 지금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발언한 배경엔 이 같은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어제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그동안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결정된 것도 없다'는, 소위 '스리 노(3 No)'라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있으며 그 위협의 해소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 정

부가 어제 분명히 했다"며 "중국 등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4월1일 정책 의총을 통해 사드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측에서는 사드의 공론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향후 정책 의총의 항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girin@yna.co.k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http://www.prospectdental.com)

## Salon Sabrina

#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소득 제자린데 전셋값 폭등...작년 전세대출 16조원

전년 대비 42% 증가...  
2008년 후 6년간  
전셋값 44% 증가

김기준 의원 "빛내서  
집사라' 정책 탓...  
'주거안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지난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 규모가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전세자금 신규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1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35조1000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액수다.

전세대출 규모의 급등은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08년 금융위기 후 6년 간 전국 전세가격은 44% 증가했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 58%나 늘어났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동기 물가상승률(14.1%)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6.3%(아파트 7.9%)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 기존 전세금의 15% 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소득은 제자린데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세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빛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닌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전세대출 금리인하 등 단기대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

## 문재인-홍준표, 서로 벽에 대고 이야기한 느낌

문재인,홍준표 경남지사와  
'무상급식' 담판...이견차만  
문 "벽에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 홍 "나도 마찬가지로  
감정싸움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유대, 진동영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의 '중복' 공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1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기종의 한미동맹 테러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바이러스처럼 번져있는 극단적 중복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김기종과 거리두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극단적 중복세력과 분명한 '절교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회의에서 "김씨를 도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김씨가 생떼를 써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만 할 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시키고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중복, 폭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앞서 "새정치연합이 '중복 숙주'에 관한 참회록을 쓸 때"라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는 불순한 중복 세력까지 뒤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새정치연합과 김기종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자체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은 발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복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법리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빌며 행여라도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때를 만났다는 듯 공당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을 중상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은 낚은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법적 대응 방침에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태도"라고 재반박하며 맞대응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해법이 필요한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운운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한 "김기종이라는 중복 극단주의자가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제2, 제3의 김기종과 같은 중복 극단주의자가 정치권과 시민운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킬 것인가 하는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ydkim@yna.co.kr



1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강우 남북협력지구개발단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관련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정부 "개성공단 사태, 엄중한 상황"

북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관련  
"단호한 마음자세로  
정부와 함께 해달라" 주문

다. 이어 "지금 당장 수용가능하다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상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측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임금을 계속 인상할 것"이라며 "노동규정의 다른 항목도 일방적으로 개정 및 적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기업은 경영이 악화돼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는 17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함에 이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대책 설명회에서 "입주기업인 여러분들도 평상시와 달리 단호한 마음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업인 여러분이 쥐고 있다"며 "단결해 정부와 함께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정부 간 긴급 대책회의의 연장선으로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들에게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전달하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입주기업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북측의 조치로 입주기업들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시 경험보험금 지급 확대, 경험보험금 미가입 기업 대책 등 퇴로보장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seojiba@yna.co.kr

신입회원및 학생회원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 보스톤 중앙대 동문회 제19차 정기총회



안건: 19차 정기총회  
 일시: 2015년 3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청기와 레스토랑  
 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문의처: 회장 이기환: 781-270-4627 / 총무 조재석: 978-558-3567



동문들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고자 동문님과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19차 정기총회 들 가지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 하셔서 청풍 중앙인의 사랑과 화목의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명수대 언덕 추억의 강가를 함께 거니는 보스톤 중앙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BOSTON 중앙대학교 동문회원 (순서없음)

- |               |           |           |            |            |            |              |
|---------------|-----------|-----------|------------|------------|------------|--------------|
| 김정숙(경제 54)    | 한운영(심리55) | 김섭(사사62)  | 신영각(경영대학원) | 이진주(화학60)  | 김제숙(화학64)  | 이경빈(신방59)    |
| 김광수(정외75)     | 박성규(심리64) | 김유상(국문64) | 이기환(광산65)  | 강천성(기계70)  | 김옥식(심리77)  | 김세형(화공77)    |
| 한호순(문장84)     | 홍영균(경영86) | 이시원(약학83) | 윤정우(약학62)  | 김아람(사진87)  | 이상현(경영62)  | 조재석(디자인91)   |
| 강윤주(조소91)     | 유경련(철학88) | 유영란(발문87) | 이경원(경영85)  | 문송(문장85)   | 정성욱(약학 82) | 장승훈(건축공학 70) |
| 석선욱(경영70)     | 김병호(법학78) | 김영주(교육82) | 이재석(토목89)  | 김태규(피아노96) | 이여름(무용97)  |              |
| 유혜경(음악대학원 98) |           |           |            |            |            |              |

# 보스톤 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APPY

# 해피돌상

##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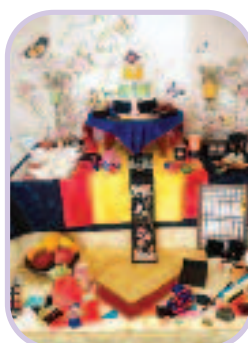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헌류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디, 한지외무침과 매운탕까지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 스크리시 셀몬, 허마찌,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폭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일스런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u Parish in Boston, MA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http://www.bostonrenewal.org)

엔티비 & TV가 티브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 TV는 사랑을 싣고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3월 31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CN, Olive, OCN

##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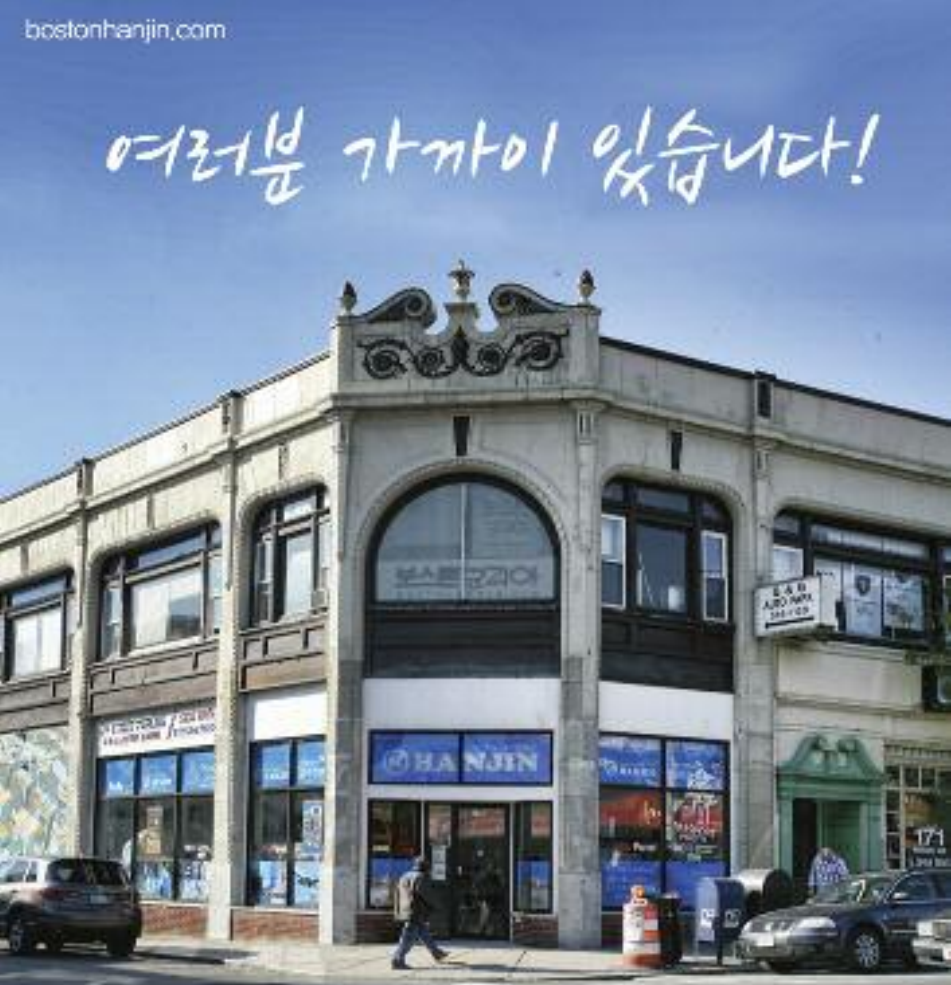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눈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눈꺼풀 수술을 성형수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안과의사에 맡기십시오

- 기능적 눈꺼풀 수술 (안검하수 수술, 눈매 교정술)
- 미용 눈성형 수술 (쌍꺼풀 수술)
- 보톡스, 레스틀린, 및 기타 미용 성형 시술



## 나영 그레이스 리 (Nahyoung Grace Lee), M.D.

그레이스 리 박사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USC 도헤니 눈 연구소에서 수련하였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Boston and Waltham Locations • 617.573.5550 • MassEyeAndEar.org

# Crouser & Suh PLLC

##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 패트리어츠 자유 계약 선수 성적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NFL의 자유 계약 시장이 시작된 후 폭풍 같은 일 주일이 흘렀다. 여러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 입었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역시 팀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유 계약 시장 이후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변화는 세컨더리 선수들이다. 상대팀의 패스 수비를 담당하는 세컨더리에서 데럴 레비스, 브랜든 브라운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다른 팀과 계약을 맺었다. 대신 패트리어츠는 데빈 맥커티와 계약을 연장하여 전력 누수를 줄일 수 있었다.

빌 벨리치 감독 체제에서의 패트리어츠는 자유 계약 시장에서 한두 명의 스타 선수와 대형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재능있는 선수들을 여러 명 영입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올해 역시 벨리치 감독은 자유 계약 시장에서 첫 주에 타이트 엔드, 라인배커, 와이드 리시버 등 다양한 선수들을 패트리어츠에 합류시켰다.

패트리어츠가 자유 계약 시장에서 계약을 맺은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자.

Devin McCourty (5년, \$47.5 M)  
패트리어츠에서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자유 계약 선수가 되는 선수 중 꼭 잡아야 되는 선수가 데빈 맥커티와 데럴 레비스였다. 결국 레비스는 떠나고 맥커티만 패트리어츠와 재계약을 맺었

다. ESPN에 따르면 재규어스, 타이탄스, 자이언츠, 이글스 등 여러 팀들이 맥커티에 관심을 보였다. 맥커티가 자유롭게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신분이 되기 불과 몇 십 분 전에 패트리어츠는 장기 계약을 통해 맥커티를 붙잡을 수 있었다.

맥커티는 레비스와 브라운이 떠난 패트리어츠의 패스 수비를 지난 시즌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다. 상대팀의 패스 공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며 디펜시브 캡틴으로서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다. 패트리어츠가 비교적 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맥커티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선수다.

Grade: A+  
Jabaal Sheard (2년, \$11 M)  
패트리어츠의 아웃사이드 라인배커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웃사이드 라인배커의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젊은 선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2011년 NFL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브라운스에 선택되었던 자발 쉬어드는 26살의 젊고 재능있는 선수다. 3-4, 4-3 포맷에서 모두 기용 가능하고, 패트리어츠가 선호하는 패스 러시에 적합한 선수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주전 아웃사이드



패트리어츠와의 계약에 서명하고 있는 자발 쉬어드

라인배커는 찬들러 존스와 랍 닌코비치가 맡게 될 것이다. 쉬어드는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백업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Grade: B+  
Brandon Gibson (1년, \$825,000)  
돌핀스에서 와이드 리시버로 활약하던 브랜든 깁슨은 샐러리캡에 대한 부담 때문에 2월 말에 팀에서 방출되었

다. 그리고 패트리어츠는 자유 계약 시장이 열리자마자 깁슨과 계약을 맺었다.

깁슨이 돌핀스에 있을 당시 샐러리캡에 책정된 연봉은 426만 달러였다. 비록 1년이지만 82만 5천 달러에 계약을 맺은 패트리어츠는 할값에 깁슨을 얻은 셈이다.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2013년에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 지난

시즌 저조한 성적을 거둔 깁슨에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건 위험 부담이 있다.

패트리어츠의 와이드 리시버 선수층은 얇은 편이 아니다. 깁슨이 다음 시즌에 경기장에 나서려면 오프시즌 동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Grade: C-  
jsi@bostonkorea.com

## 김형주 칼럼



**김형주**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플래그십 프로그램, 공공정책학(Master of Public Policy) 과정에 수석중. 한국에서 방송기자로 9년. 잠시 유엔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공보관으로 근무. 언론과 정치, 경제 영역의 접점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찾고자 연구중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죽는 기사 살리기

현대 미국 정권 중 언론의 자유에 가장 자주, 심각하게 간섭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지부시 전 대통령 정부. 하지만 한국의 업계관행과 비교할 때는 오히려, 매우 신사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타협을 하려했다고 봐야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는, 합리적으로 사안을 저울질 할 줄 아는 기자들의 전문성과 외압에 맞서 꾀꿨던 기자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보도국 전체의 양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바튼 컬럼은 '특종자판기'로 불리는 간판 탐사보도 기자다. 그의 경험담은 미국의 주류언론이 어떻게 정부의 외압에 대응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1) 자체 판단...  
바튼은 걸프전이 한창이던 1991년, 연합군 총사령관 스와츠코프 장군이 갑자기 매일 파괴하는 이라크 군의 장갑차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고 취재에 나선다.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에게 사츠마와리 스타일로 취재를 한 끝에, 그는대전차 공격 헬기 조종사들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걸 알아낸다. 헬기 조종사들은 보통 적외선 카메라로 주변 지형보다 뜨거운 곳을 장갑차가 숨어 있는 곳이

라 생각하고 공격했었는데, 장갑차의 철판 장갑이 밤에는 사막의 모래보다 급격히 빨리 식는다는 점을 알아낸 뒤에는 밤에만 출격해, 적외선 카메라의 과란점만 찾아 요격해낸 것이다. 바튼은 이 사실을 보도할 경우, 적군을 이롭게 할 것이라 판단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죽인다 (미국에서도 'kill'이라는 표현을 쓴다).

2) 협상 (거부)  
2002년 바튼의 동료기자는, 9/11 테러 직후 부시대통령이 구소련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만들었던 COG/COOP (Continuity of Government, Continuity of Operations) 작전을 부활시켜,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상급 간부(보통 장관급)들을 지하벙커로 보내 '그림자정부(shadow government)'를 꾸렸다는 사실을 취재한다. 화들짝 놀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앤드류 카드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카에다의 사기만 진작시키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보도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아리송해진 보도국장은 바튼에게 자문을 구하고, 바튼은 앤드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기사를 죽이라는 요구를 일축한다.

3) 협상 (수락)  
바튼은 비슷한 시기 알카에다가 미국의 추적망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지 미국 CIA가 파악한 전체적인 수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다. 이번에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애원한다. "당신을 취재력 한번 끝내준다. 하지만 결코, 결단코 국익을 위해 보도를 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라이스의 수시간에 걸친 설명을 들은 뒤, 바튼은 왜 기사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저해되는지에 대해 이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보도를 포기한다.

4) 승리  
바튼처럼 베테랑은 아니지만, 수완이 좋은 같은 보도국의 여기자 프리스트는 그야말로 월척을 건진다. 부시 정부가 해외에서 해당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비밀 테러리스트 용의자 수감 시설들을 운영해왔다는 특종을 취재한 것. 체념한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국장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한다. 그리고 해당국가가 기사때문에 테러의 타겟이 되거나, 대테러 연합전선에서 이탈하지 않게끔만 도와달라는 두루뭉실한 조건만 내건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진과 프리스트는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국가의 이름만 기사에서 지운 뒤 보도한다. 대통령의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강행한 이유는 불법 해외 수감시설이 미국의 법과 가치에 위반되니, 보도해 시정할 점을 시정하는 것이, 기사를 죽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기사는 프리스트와 워싱턴 포스트에게 폴리처상의 영광을 선사한다.

기자생활 근 십년간 원인을 잘 알 수 없게 죽어간 기사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이런 관행은 어느 언론사 할 것 없이 똑같았다. 왜 기사를 죽여야하고 왜 기사를 포기할 수 없는지 공개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며, 보도국 안에서는 그 자체로 어린 기자들에게 훌륭한 기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힌 한국의 언론자유도 랭킹은 올해 세계 60위. 하지만 8년전 성질이 다른 정권에서 31위를 했을 때에도, 음침한 곳에서 기사가 죽는 관행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부와 언론, 두 주체 모두 바뀌어야,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언론의 자유'는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에 미국의 케이스를 소재로 언정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소통,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봄이 어떠한가?

휴람 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del>62만원</del> → 47만원	<del>78만원</del> → 59만원
휴람정밀	<del>120만원</del> → 91만원	<del>136만원</del> → 103만원
휴람VVIP	<del>304만원</del> → 228만원	<del>329만원</del>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시~2시

## 휴람 제휴 이벤트

#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del>150만원</del> → 120만원	무식제 라미네이트 <del>80만원</del> → 60만원 ※ 부가치세별도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부가치세별도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원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학 인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에띠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띠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del>19만원</del>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del>20만원</del>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del>25만원</del>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del>32만원</del>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del>38만원</del>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띠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사인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가지 서비스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75,000**  
**Sharon, MA**  
3 Beds, 1.5 Baths, 1834sf.  
Center of Town Locatio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000**  
**Sharon, MA**  
3 Beds, 1.5 Baths, 1850 sf.  
세련된 스타일, cul-de-sac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Brookline coolidge corner  
\$450,000  
Beer & Wine License  
Jason Jeon 617-642-5670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여년의 마을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Full Plant Cleaner	Business Consulting	Restaurant
			

\$55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690,0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Restaurant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250,000  
**Peabody, MA**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Full Liquor License  
Jason Jeon 617-642-5670

\$500,000  
**보스톤 인근**  
일식당, 매상 \$800K+  
Beer&Wine License  
Jason Jeon 617-642-5670

Coin Laundry	Restaurant	Dry Cleaner	Restaurant
			

\$94,9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250,000  
**보스톤 인근**  
일식당, 매상 \$600K+  
Beer&Wine License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b>Investment</b>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b>Full Plant Cleaner</b>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b>Convenience Store</b>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b>우스터 병원 건물 매매</b> \$1,000,000 6200 sf. 주차장 포함 UMASS 병원 근처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b>커머셜</b>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한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생어, 훈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몬,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스톤에 위치한  
최의 오빠스시에서  
상징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12 March 20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대만의 자부심을 꽃빙수

**틸로소피(Tealosophy)**

업소탐방 279

틸로소피(Tealosophy)

3 North Beacon St., Allston, MA 02134  
617-903-3496  
tealosophyusa.com

연타미 8가지 100 Play로 새겨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 하러오세요.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3월 31일까지 2년 약정시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국에 팔빙수가 있다면 대만에는 눈꽃빙수(Shaved Snow)가 있다. 올스톤에 위치한 티로소피(Tealosophy)는 대만식 디저트 가게로 이곳의 특별 메뉴는 대만식 아이스크림 눈꽃빙수다.

눈꽃빙수는 아이스크림을 갈아만든(?) 부드러운 디저트다. 입에서 사르르 녹아 대만에서는 '솜사탕 같은 아이스크림'으로 불리기도 한다. 얼음을 갈아만든 빙수에 비해 식감이 부드러우며 유제품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눈꽃빙수는 저칼로리 디저트로 가벼운 후식을 찾는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것이 티로소피 에릭 대표의 말이다. "눈꽃빙수는 16온스에 100칼로리도 되지 않는다"며 "이색적이면서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틸로소피의 눈꽃빙수는 망고, 딸기, 초콜릿, 녹차 등의 다양한 맛이 있으며 각종 과일과 초콜릿 칩, 팥, 젤리 등의 토핑을 자유롭게 더할 수 있다. 두 개의 토핑까지 고를 수 있는 스몰 사이즈는 \$3.50이며 네 가지까지 고를 수 있는 라지 사이즈는 \$4.50이다. 토핑 추가는 \$0.50이다.

"여름이 되면 더 다양한 맛의 눈꽃빙수를 출시할 것"이라는 에릭 대표는 "기대해도 좋다"는 당당한 포부를 보였다.

한편, 생강차(Ginger Tea)는 에릭 대표가 추천하는 티로소피의 대표적인 차다. 메인 주에서 1호점을 운영할 당시 외국인 손님들이 가장 좋아한 메뉴가 바로 이 생강차라는 것이 에릭 대표의 말이다. 무엇보다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주문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좋다.

"생강차를 파는 가게는 더러 있지만 우리 가게처럼 다양한 생강차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에릭 대표는 자부한다.

과연, 생강 밀크티부터 생강 녹차티, 생강 아몬드, 생강 코코넛, 심지어 생강 초콜릿까지 이색적이면서도 달콤한 조합에 호기심이 생긴다. 기호에 따라 따뜻하게도, 차게도 마실 수 있는 생강차는 단연 티로소피의 자랑스러운 메뉴가 아닐 수 없다. 아이스크림과 핫티는 \$3.25이며 슬러시처럼 블렌드된 생강차는 \$4.50이다.

틸로소피는 개업을 시작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단골 손님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여기 저기서 숙제나 공부를 하고 있는 손님들이 눈에 띄

며 다양하게 마련된 보드게임을 즐기러 오는 손님도 있다. 티로소피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며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금요일은 밤 11시), 주말은 12시부터 밤 11시(일요일은 밤 10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493 Main Street, Malden, MA 02148  
주요예배 11PM 담임목사 유영환  
TEL. 617-838-6434

bgabc.org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재민간봉사위원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98-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건축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BI한인경제연합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문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문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지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17-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골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9-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옥 루핑사이딩 전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 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 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 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보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이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수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 생선가게

매더랜드마켓	617-298-2260
매일찬치피시	781-862-7984
보스틴피시	617-282-2980
브룩린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김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트)	617-208-8540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도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도시	617-731-1122
Mr. 도시 (Arlington)	781-643-4175
분촌	617-254-8888
분촌 허버드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1	617-623-7220
북경반점2	617-254-2775
비빔	617-787-5656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러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하실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Belmont 방렌트, 하버드스퀘어 10분  
유틸리티 포함 \$800/월  
T. 617-999-9290 (우정 맘)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매 매]**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 매매 합니다  
(하드릭 포함)  
렌트 \$1,864/월  
매매 \$65,000 (영주권자 이상 만 가능)  
T. 210-803-5194

**N[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췌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매 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N[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구인]**  
높은 수입보장(월 6천 - 1만)  
손님 수준 높고 Tip도 많이 벌수 있는  
기회  
S 룸,카페 마담, 아가씨 구함  
산호세 지역, 숙식제공  
주급+Tip 수준높은 실리콘 밸리 지역  
T. 651-329-3307

**N[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 크레용팝, 귀여운 여전사로 변신

**'미모 물올랐네'**

(서울=뉴스1스포츠)박건욱 기자 = 컴백을 앞두고 있는 크레용팝이 앨범 재킷 개인컷을 공개했다.

크레용팝은 지난 18일 저녁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멤버들의 개인컷을 공개하며 신곡 'FM'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트레이닝복을 변형한 검은색 의상에 흰색 부츠와 보호대를 착용한 크레용팝 멤버들은 파이팅 넘치는 포즈를 취하며 여전사의 느낌을 주는 동시에 크레용팝 고유의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싱글앨범 '어이' 이후 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크

레용팝의 이번 컴백 타이틀곡 'FM'은 인기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몬스터 팩토리가 의기투합해 완성한 곡이다.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일리시한 일렉트로 팝 장르인 'FM'은 항상 틀에 갇혀 FM 대로 행동하는 남자를 자신의 마법 같은 매력으로 바꿔놓겠다는 의미의 신비로운 가사와 리드미컬한 멜로디가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레용팝은 오는 21일 저녁 8시 서울 동대문 두타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신곡 'FM'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kun112@news1.kr

## 미쓰에이 새 앨범 <컬러> 티저 이미지 공개

**사랑스러운 핑크빛 여성미**

(서울=뉴스1)온라인팀 = 컴백을 앞두고 있는 미쓰에이(페이, 지아, 민, 수지)의 새 앨범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다.

미쓰에이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0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새 앨범 '컬러'의 티저 이미

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미쓰에이 지아, 민, 수지, 페이는 핑크빛의 의상을 입은 채 활짝 미소를 지으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어두운 클럽 배경과 달리 봄을 연상시키는 의상의 색과 핫팬츠, 크롭톱의 발랄한 연출이 눈길을 끈다.

미쓰에이가 지난 2013년 11월 2집 앨범 'Hush' 발표이후 1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컬러'는 당당한 여

성을 콘셉트로 했다. 지난 11일 미쓰에이 소속사 측은 새 앨범과 관련해 "이번 곡은 미쓰에이 하면 연상되는 당당하고 도도한 여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안무 역시 그런 느낌을 강조하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쓰에이는 오는 30일 미니앨범 '컬러'를 공개하며 쇼케이스를 통해 팬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soho0901@news1.kr



## '앵그리맘' 첫방, 김희선 차진 욱 연기에 모성애까지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앵그리맘' 첫방이 김희선의 차진 욱 연기로 통쾌함을 선사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앵그리맘'(극본 김반디, 연출 최병길)에서는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강자(김희선 분)의 모습과 더불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란(김유정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강자는 아란이 자신을 차갑게 대하자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된 거 있어"라고 물었고, 아란은 "엄마가 엄마인 게 잘못이야"라며 쏘아붙였다. 강자는 뒤늦게 아란이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 것을 알아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전학 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과거 자신과 인연을 맺으며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판사 진호(전국환 분)조차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강자는 절망에 빠졌다.

강자의 마음을 뒤흔든 건 아란이었다. 아란은 힘겹게 "살려줘, 엄마"라는 말을 했고, 강자는 딸의 한마디에 큰 결심을 했다. 그는 한 나이



트클럽을 찾아가 모든 폭력배들을 제압한 후 "네 보스에게 별구포 사시미가 왔다고 전하라"는 강렬한 대사로 극을 마무리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김희선은 욱 연기와 몸사리지 않는 액션은 물론 아란을 향한 애뜻한 모성에 연기까지 '김희선의 재발견

'이라는 말을 할 정도의 연기를 선보였다. 또 어리바리한 캐릭터로 첫 등장한 지현우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김유정, 두 얼굴의 악역 김태훈 등은 각 캐릭터를 설득력 있고 실감나게 묘사해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게 했다.

ppbn@news1.kr

## 박유천, 신세경 앞 극과 극 매력 '로맨틱'

**'냄새를 보는 소녀'**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이 극과 극 매력을 지닌 캐릭터로 분해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18일 공개된 SBS 새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극본 이희명/연출 백수찬) 두 번째 티저 영상에는 로맨틱 가이로 변신한 박유천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박유천은 신세경 앞에서 꽃다발을 숨기고 탄정을 피우고 있다. 이어 깔끔한 재킷을 입은 채 달달한 목소리로 신세경에 대한 마음을 고백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앞에선 시크하고 무뎠직한 남자지만 뒤에선 한 여자에 대한 설레는 감정을 드러내는 박유천의 다채로운 매

력에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이고 있다.

박유천은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감각을 잃어버려 극도의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경찰 최무각 역을 맡았다.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 사랑스럽다",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 어서 빨리 드라마 보고싶네",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 달달해",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 로맨틱하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냄새를 보는 소녀'는 3년 전 바코드를 살인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무감각한 남자와 초감각 소유자인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오는 4월1일 밤 10시 첫 방송.

aluem\_chang@news1.kr



# 한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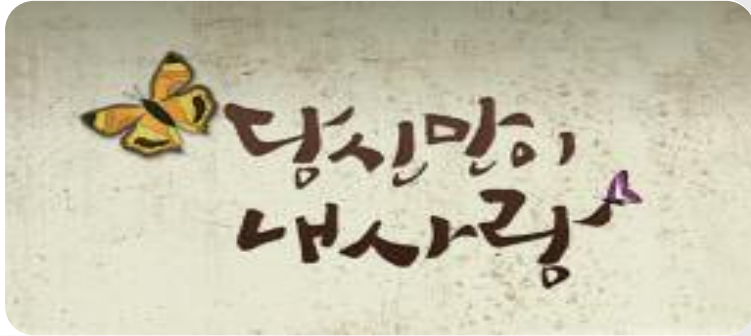


# 시청률 순위

2015년 3월 9일 ~ 3월 15일



**1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28.4%



2위 KBS2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 23.6%



3위 MBC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 23.1%

- 4 KBS2 주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8.7%
- 5 KBS1 KBS9시뉴스 18.0%
- 6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7.0%
- 7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14.5%
- 8 KBS2 해피선데이 14.4%
- 9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14.1%
- 10 KBS2 개그콘서트 13.9%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 01 사랑 범벅 MC 몽
- 02 시작이 좋아 2015 지민, 슬옹
- 03 같은 시간 속의 너 나얼
- 04 어쩌라고(So What) Beenzino
- 05 슈퍼스타 키썬, San E
- 06 My Type 제시
- 07 Apple 가인
- 08 그탕(Just) Zion.T, Crush
- 09 미쳐 4minute
- 10 목소리 노을

## 숫자 퍼즐 (Sudoku)

	4	2	3			1		6
6	5							
3			9					
		3		8			6	
5		4	6	1	3	8		9
	7			2		4		
					2			7
							2	5
2		1			6	9	8	

3월 22일 - 3월 28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사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 이상 마음속은 안 그런데 차마 말 못해서 그런척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4, 26일 길일, 22, 28일 주의.

**토끼띠 | 동업은 하지 말아야**

● 운수: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며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주입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고 명예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 애정: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분에 충실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말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 운수: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들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동이 되나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은 모르지만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지쳐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닭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주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고 있고 있다고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소띠 |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 운수: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큰 어려움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씹씹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주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4일 주의.

**용띠 | 기분 전환이 필요한**

● 운수: 해결점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노력과 지출도 해야 하는 때입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지면서 바로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양띠 | 행운이 함께 하는**

● 운수: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현실을 직시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되는 주입니다. ● 금전: 지출이 많이 하게 되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운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는 주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하는 주입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개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되니 생활의 활력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28일 길일, 24, 26일 주의.

**범띠 | 의욕이 샘솟고**

●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 금전: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드디어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다는 대목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 주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8일 길일, 22, 24일 주의.

**뱀띠 | 서두르지 않도록**

● 운수: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 주입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의심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원숭이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직장인은 크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 금전: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돼지띠 | 활기를 찾게 되는**

● 운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입니다.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가정문제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 이규태 회장 - 클라라 녹취록 공개

“내가 마음 먹으면, 방송 못 나와”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클라라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녹취록에 이규태 회장의 협박성 발언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는 클라라로부터 입수한 이규태 회장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규태 회장은 과거 일광 플라리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던 또 다른 연예인을 언급하며 “나하고 안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결정짓고 내가 하루 만에 딱 끝냈잖아. CJ, 로엔, 방송 다 막았잖아. 그 뒤로 안 됐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음 먹으면” 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화가 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겠니? 너를 위해서 돈 쓸 걸

너를 망치는 데 돈을 쓴단 말이야 내가” 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너는 지금 몰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카톡 보낸 것, 내가 다른 전화로 해 갖고 해도 나는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도 했다.

채널A는 이를 두고 “협박처럼 들린다” 고 표현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이두아 변호사는 “방어적 입장에서 나온 정황이 참작될 순 있

겠지만 분쟁 중 그의 이러한 발언을 상대가 지위를 이용한 위압적 태도라고 느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고 주장했다.

다만 채널A는 공개된 이규태 회장 녹취록에 대해 “앞뒤 정황이 다 입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규태 회장의 발언만으로 전체를 속단할 수는 없다. 법의 판단에 맡긴다” 고 여지를 남겼다.

soho0901@news1.kr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OO,OO 방송 다 막았잖아? 응? 그 뒤로 안됐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음먹으면 너는 지금 몰라.



## 〈동상이몽〉 유재석의 첫 번째 가족예능

김구라와 2색 진행 선보인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방송인 유재석이 SBS 새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이하 '동상이몽')로 가족 예능에 도전한다.

17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유재석은 최근 김구라와 함께 '동상이몽' 출연을 확정지었다. 일반인 가족들의 '동상이몽'을 진단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가족 예능을 진행하게 된 것.

'동상이몽'은 제목처럼 가족간의 '동상이몽'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능이다. 일반인 10대 자녀와 부모의 각기 다른 모습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차이를 좁혀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유재석은 방청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스튜디오 토크 진행을 맡았다.

soho0901@news1.kr

## 서동주 "엄마 말이 사실, 이혼 했으면"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서동주가 "엄마 말이 사실"이라며 부모님 이혼 공방 후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17일 Y-STAR는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딸 서동주와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서동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아빠가 소송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빨리 이혼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서동주는 이어 "어릴때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아 이걸 뭐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며 "같은 여자이다 보

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 고 했다.

서동주는 또 부모님의 폭로전에 대해 "엄마가 하는 말들이 사실"이라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밝혀져서 부끄럽고 힘들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다.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직접 나설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정희는 "19세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며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lee1220@news1.kr



## 〈응답하라 1988〉 편성 논의 중

신원호PD "따뜻한 가족드라마 구상 중"

(서울=뉴스1) 온라인팀 = 큰 인기를 모은 '응답' 시리즈를 잇는 '응답하라 1988' 이 하반기에 편성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지붕 세 가족' 과 유사한 분위기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호 PD는 17일 한 매체를 통해 "'응답하라 1988'은 1988년을 배경으로 한 가족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1988년 어느 골목길을 배경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사연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싶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80년대 큰 인기를 끈 MBC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응답하라 1988'은 대본 작업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캐스팅 작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khe45678@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뉴튼아름다운교회

www.newtonbeatifulchurch.org

# 열두 광주리 새벽 집회

2015년 유월절, 부활절 기념

**주제: 토라(모세 오경)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

**일시: 3/23(월)-4/4(토), (3/29 주일 제외)**

**평일: 오전 5:30-6:30, 토요일: 오전 6:00-7:00**

**장소: 뉴튼 아름다운교회**

**848 Beacon Street Newton Centre MA 02459**

**전화: 978-387-1115**

**www.newtonbeatifulchurch.org**



→ 오시는 길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 보스톤 가이드 앤 맵



##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9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부부가 서로에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여보'라는 호칭은 참으로 따뜻하고 듣기 좋은 이름이다. 한국에 사는 친구 중에 늘 여보 당신 부르며 지내는 친구 부부가 있다. 어려서는 그 호칭이 무엇인가 어색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이쯤에는 그리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고 따뜻해 보여 보기 좋았다. 그 호칭도 결혼 후 처음부터 서로 부르고 불려지면 괜찮지만, 나중에 여보 당신을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호칭이기도 하다. 호칭 얘기를 떠올리다 보니 나도 하루쯤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하고 부르는 그 호칭이 듣고 싶어지는 날이다.  
문득, 우리 부부는 어떤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머문다. 미국에 6살에 이민 온 남편은 미국 이름을 갖고 있었으니 대학을 다니다 만난 우리 부부는 당연히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서로가 부르던 호칭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꿀 생각도 없이 부르게 되었다. 시댁에서 결혼 후 2년 6개월을 시집살이하며 살던 때

에 아빨싸!!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아버님께서 들으시고 호통을 치신다. 그 순간의 부끄러움과 노여움이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했던 기억이다.  
남편은 지금도 어릴 적 연애하며 부르던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는 딸아이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 아빠'라든가 가끔 '자기'하고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시아버님께 된통 혼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세 아이들 앞에서 여전히 남편의 미국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편이 집을 떠나 여행 중에 있을 때 하루는 막내 녀석이 위층에서 아래층에 고개를 내밀고 엄마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아빠가 집에 없는 날 아빠 흉내를 내며 엄마를 웃겨보려는 심사이지 뭐냐. 그래서 아래층에 있던 큰 녀석과 딸아이와 엄마인 내가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음을 터뜨렸는지 모른다.  
여하튼, 부르고 불리는 그 호칭에 따라 느낌은 아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보, 당신으로 부르는 부부에게서는 웬지 모를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이 느껴진다. 가끔 한국 부부들 중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

까지는 괜찮지만, 누가 있으나 없으나 자식 부르듯이 '어이'라든가 '야' 정도의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듣기 민망할 때가 있어 못 들은 척하기도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남는다. 그렇게 쉽게 여기며 부르는 호칭에서 서로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부부간 존중의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살면서 서로 부르는 호칭에 관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미국(다국) 며느리를 얻거나 사위를 얻게 되는 일이 태반인데 그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따로 없이 이름을 부르는 까닭이다. 오래도록 미국에 살아도 미국 며느리가 한국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면 듣기가 조금은 거북스러운 것이 사실이지 않던가. 그래도 재치 있는 며느리나 사위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쓰며 곱살스럽게 구는 사랑스러운 며느리 자식과 사위 자식도 있기는 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알려주면 좋을 일이라는 생각이다.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는 이 작은 호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다. 부모 가정 교육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다. 그렇게 배운 것이 나중에 자라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부모 노릇이란 정말 끝이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자식들 장래의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한 가정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바르게 서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의무까지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서로의 존중과 사랑을 통해 배우의 씨앗이 자라는 까닭이다.  
"여보, 사랑해!!"  
오늘은 이 호칭으로 남편에게서 따뜻한 사랑의 말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뭐라 대답하면 좋을까.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당신, 나도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가슴 따뜻한 마음의 '여보'라는 호칭과 '당신'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불리고 싶은 날이다.  
"여보, 사랑해!!"



## 한담객설閑談客說: 사내의 눈물을 허許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봄비가 내렸다. 쌓인 눈위에도 내렸다. 빗물은 굽지 않은데, 그렇다고 젖시지 않는건 아니다. 봄이 늦어서 그런가, 봄비가 반갑지 않은 않다. 여전히 을씨년스러워 그런가 보다. 내게 늦은 봄비는 눈물과 구별이 쉽지 않다. 봄비는 뉘힌 눈을 녹이는데, 눈물은 쌓인 앙금을 녹여낼 겐가.  
'사내 녀석이 눈물은...' 내 어머니는 서러운 어린 아들 속을 뒤집어 놨다. 꾸지람이 되풀이 됐으니 더 자주 울었던 거다.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역정까지 얹어 주셨으니 더 창피했다. 울다가 멈출수도, 그렇다고 더 울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다. 그때 많이 울었으니 이전 눈물이 마를 법 하다. 내 눈물샘은 화수분인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넘쳐 흐르는데, 계절과 날씨 탓만은 아니다. 시인이

울었다. 시인의 눈물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나이 쉰 살/변하지 않는 건 생겨날 때 가져온/울어도 울어도 마르지 않는/눈물샘 뿐이다.  
(임성춘, '쉰 살즈음' 중에서)  
한국 화장실에서 용변중이었다. 웃다가 너무 흔들려 자칫 흘릴뻔 했다. 웃던 이유는 번기 앞에 붙었던 글귀였다. '남자가 흘려서는 안되는 건 눈물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화장실이다. '진일보進一步' 한발 더 앞으로 다가서 라는 말이다. 백척간두百尺竿頭라는 말을 더하지 않아 그건 다행이다. 이번에 너무 우스워 웃다가 눈물방울까지 맺혔다. 거의 울뻔 했는데, 용케 참았다. '웃

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 가사')  
여자들만 우는 건 아니다. 총무공도 울었다. 소설 '칼의 노래' 한 대목이다. 이만큼 소리높지 않은데, 짠맛이 나는 눈물이 없다. '나는 소금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니 위에 엎드려 나는 겨우 숨죽여 울었다. 적들은 오지 않았다. 내 몸속 깊은 곳에서 징징 우는 칼의 울음이...' 장군은 소금창고 안에 들어가 울었고, 연암 박지원은 요동 땅을 보고 울기에 좋은 장소라고 했다. 연암 일기중에서 호곡장好哭場 몇구절이다.  
'오호!..... (중략)....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 멋진 울음터로구나. 크게 한 번 울어볼 만 하도다!' (연암일기중에서, 고미숙 번역)

이젠 남자들에게도 눈물을 허許해야 될게다. 사내들도 그저 쏟아지는 눈물에 콧물을 주체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현대, 목놓아 울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봄비 속에 비 맞으며 눈물 흘리고 싶은 마음은 털끝 만큼도 없다. 감기 듣기 심상이다. 차안에서 울어야 하나.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텐데. 운전하면서 울텐가. 그렇다고 울기 위해 만주로 여행할 수도 없는바. 소금창고를 찾아야 하는가.  
내가 울기 전에 아내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게 순서다. 사내가 울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다 해도, 울 틈도 없다. 그래도 사내의 눈물을 허許하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35)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 언어 도시  
몬트리올!!


##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tolerant friendly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교육원에서는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É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부엌 업그레이드 주택 가치 높여”

### [넓은 공간 만들기]

미래의 주택이 축소지향적일 것이라는 전망과는 무관하게 실제 미국인 주택 소유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넓은 실내의 공간이다. 전국 주택건설업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주택을 매입했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다음 집은 30%는 지금 집보다 더 넓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의 부동산 브로커들에게 물어본 결과 요즘 주택 소유주들은 다음 집을 살 때 원하는 것은 3가지. 넓은 공간과 현대적 편리함, 럭셔리한 분위기가 그것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 벽을 터서 넓어 보이게 만든다

공이 없어도 되는 도어나 복도 벽은 없애서 탁 트여 보이게 한다. 도어 힌지를 빼서 문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거나 글래스 프렌치 도어(400달러)를 달면 실내가 훨씬 경쾌하고 넓어 보인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꼭 없어도 되는 벽은 허물어 버린다. 한 조사에 의하면 홈오너의 40%는 패밀리룸과 부엌 사이를 반벽(half wall)으로 구분하길 원하며 38%는 아예 벽이 없기를 원했다.

벽을 제거하는 비용은 1,500~4,500달러. 벽이 하중을 지탱하는 벽인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단순히 구분만 하는 벽이면 큰 돈이 들지 않

는다.

#### ■ 낭비공간을 거주 공간으로

반드시 플로어 플랜을 바꿔서 넓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실 등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살리면 거주공간이 창조된다. 얼마나 고급스럽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개 1만5,000~2만5,000달러가 든다. 홈 오피스나 플레이룸, 게스트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투자 회수율도 높아 나중에 팔 때 75%는 건질 수 있다.

#### ■ 아웃도어 룸을 만든다

이미 있는 포치나 패티오를 아웃도어룸으로 만드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실내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헤지나 펜스, 스톤월을 짜면 된다. 비용은 1,000~6,000달러.

햇볕을 막는 그늘을 지우려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를 붙여도 좋고 담쟁이 덩굴을 울릴 수도 있다.

각각 2,000~5,000달러가 든다. 포치나 패티오를 선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비용은 1만~2만 달러 정도 들지만 팔 때 60%는 건진다.

#### ■ 세컨드 싱크를 설치한다

더블 싱크를 설치하면 싱크가 하나인 경우보다 편리하고 멋지다. 바쁜 와중에 부부가 서로 차례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비용은 3,000~4,000달러.

#### ■ 런드리룸을 낸다

대부분 홈오너들은 런드리룸을 필수품으로 여기지만 컴컴한 지하나 거라지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매스터 베드룸 근처에 런드리룸을 하나 내면 좋다. 화장실을 리모델링(6,500~8,500달러)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리넨 클로짓에 하수시설을 추가해 용도만 변경하면 된다. 2,500~3,500달러.

주택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뤄 고급스럽게 만든다면 나중에 제값을 한다. 특히 화장실과 부엌을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좋다.

#### ■ 매스터 화장실을 스파로 한다

넓고 차분한 컬러에 스톤이나 우드로 표면 처리된 커다란 배스터브가 들어간 화장실은 선망의 대상이다.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면 스탠다드 터브와 샤워 대신 샤워 스톤과 프리스탠딩 별도 터브(4,000~6,000달러)를 설치하면 아주 고급스럽게 보인다. 최고급 자재를 쓰면 8,000~1만2,000달러가 소요된다. ‘카워시 샤워’라고 불리는 멀티헤드도 인기다. 강한 물줄기로 온몸을 마사지해줘 피로가 싹 풀린다.

#### ■ 부엌 업그레이드

근사한 부엌만큼 럭셔리하게 보이는 것은 없다. 호텔 또는 전문 레스토랑에서나 쓸 법한 대단한 커머셜 주방기구(5,000~1만2,000달러)

로 부엌을 장식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은 아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수만달러를 들일 필요는 없다.

부엌을 주로 투고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급화할 필요는 없다. 대신 아일랜드 블랙퍼스트바를 내는 편이 나을 것이다. 2,500~6,000달러.

콘크리트나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유행을 타는 품목은 피하는 것이 낫다. 지금은 유행이지만 10년 뒤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모른다.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73 태권도와 가라데(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않고 있다.

오키나와의 가라데는 15세기경에 중국의 남방무술이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의 남방무술은 손기술 위주의 무술이고, 북방의 무술은 화려한 발기술 위주의 무술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당수가 들어와서는 체계적인 신개념의 도장이나 ‘관館’의 창설 등은 일본의 그것을 베꼈지만, 기술은 우리의 고유 무예와 융합되면서 화려한 발기술에 능숙한 우리의 유전자에 맞게 발전하여 ‘태권도’라는 새로운 이름의 무도가 세계 무도계를 석권함은 물론 무도스포츠, 즉 올림픽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키나와의 가라데도 토착적인 무술(그것이 삼별초가 전래했든지, 그 이전에 존재했든지와는 무관하게...)과 중국 남방무술이 들어와서 융합되고 우수한 기술은 계승되어 발전되었고, 실전에서 비실용적인 기술은 퇴보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무술인 가라데(당수唐手)가 만들어 졌으며 그것이 전수되어 내려왔다. 그리고 1920, 30년대에 일본 본토로 소개되었고, 1940년대에 우리나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1950, 60년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흘러들어 갔다. 작은 섬 오키나와에

서 발생하여 일본 본토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으로 퍼져나간 것은 단순한 일개의 무술문화의 이동만이 아니라 인류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 복합적인 문화가 이동하면서 새로 만나는 문명과 충돌, 융합, 흡수 또는 제압을 하면서 별개의 문화로 발전되었다. 가령 미국에서는 가라데가 미국인들의 신체적인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동양무술의 인식에 관한 제반 개념은 물론, 그들의 일반 용어인 ‘무술(Martial Arts)’ 보다는 ‘가라데’라는 고유명사가 ‘Martial Arts’를 대체하여 ‘Karate, 커라디’라는 일반명사가 되어 모든 무술을 지칭하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 태권도인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하여 ‘Martial Arts’가 사회적으로 더 넓게 통용되면서 태권도와 가라데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해가고 있다.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서 이렇게 ‘가라데’가 일반명사화 되고 그들의 일반생활에 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 배달민족이다. 그가 바로 최영의崔永宜(1923 - 1994, 일본명 오야마 마사타즈, 大山倍達)라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는 ‘Mas Oyam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가라데는 일본 본토에 소개되면서도 오키나와인들이 아닌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했다. 무엇보다 일본인들도 그 중국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름인 당수唐手(손기술 위주의 당나라 무술 - 오키나와인들은 중국을 통상 당나라라고 칭했다. 가령 우리도 역사적인 고종이나 그 어떤 특정 시대나 왕조의 구분해야 될시는 정확하게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중국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를 공수空手로 개명하였다. 즉 오키나와 무술(또는 중국무술)을 일본무술로 바꾼 것이다. 당수는 맨손으로 하는 손기술 위주의 무술인 관계로 ‘빌 공수’자를 차용하여 자자를 바꾸면서 음은 같이 ‘가라데’라고 한다. 즉 ‘唐手’와 ‘空手’을 다르게 발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둘을 별개의 무술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가라데가 일본 본토에 상륙하여 일본화 하는 과정에서 개명을 한 것이다. 문자만 다르지 발음과 내용은 같다. 일본인들에게는 당수唐手와 공수空手는 발음이 같으며 그냥 같은 ‘가라데’이다. (唐手を 음독할 때 ‘토오데에’라고도 한다) 그것은 우리는 한자를 읽을 때 음독音讀을 하여 뜻을 풀이하지만, 일본은 그냥 뜻을 바로 읽는 훈독訓讀을 하기 때문이다.

휴람 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머물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정밀검사, 백내장, 녹내장, A스캔/B스캔 초음파검사, 전방깊이검사, 세극등 수정체 검사	-25만원 → 20만원
2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3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 속(?) “좁은 여자가 넓은 아름답다”

5% OFF

질이란,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트닝/임플란트/명품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순 수술	200~400만원

##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안면거상술 (목 포함)	매쉬 리프트
-700만원 → 500만원	-800만원 → 6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하안검	중안면 거상
-20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300만원 → 200만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꿈(고)

서울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는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바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4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글과 녹음 파일이 게재된 것에 대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게시물은 17일 정합철 행동하는 양심실 천운동본부(행실본) 대표가 오 모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올린 것.

4분 40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오 씨가 오는 4월 19일날 박근혜 대통령을 사형시킬 때 정 대표도 같이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머니투데이' 가 보도했다.

정 씨는 오 씨를 고소했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 씨에 대해 출석요구를 해둔 상태다.

경찰은 오 씨를 통해 '통화 중 발언' 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 씨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마크 레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의 뒤를 이어 적색테러범들이 활개치는 현실을 지켜 볼 수만 있겠냐. 더 이상 이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하려는 종북 매국노들의 활개를 방치한다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 이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세월호 천막 철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오 씨가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이 주도해 설립했다. 이 은행에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결정했다.

미국도 가입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 라며 종전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후퇴

한 느낌을 준다.

중국은 더 많은 회원국을 끌어들이려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달 말까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재촉을 받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선 중국의 발언권이 먹히지 않으니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기구를 출범시키려는 것.

유럽 국가들은 이같은 속셈들을 충분히 알면서도 실리(實利)를 추구하려고 AIIB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5월 하원 총선거를 앞둔 영국은 중국과 교역확대를 바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더 이상 못 들은 채 할 수 없어 지난달 이미 미국에 AIIB 참여를 알리고 미국의 반대를 알면서도 중국 관 국제금융가입을 결정한 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AIIB 창립 회원국이 된 것은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들 선진국들의 참여로 당장 AIIB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제시장에서 우량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貨)의 위력이 점증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동안 국제금융질서를 지켜오던 G7체제에서 미, 일,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만 빠져나갔다. 4개국은 G7과 AIIB 사이에서 양쪽 이해관계를 모두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구성하는 4대통화 가운데 유로화(貨)와 파운드화가 AIIB에 끼여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G7체제에 중국을 추가하거나 SDR 통화화 위안화가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금융질서 재편은 20~3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AIIB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초기단

계부터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AIIB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핵(核) 포기를 전제로 AIIB를 통해 북한의 낙후한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AIIB 참여 여부는 단지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 틀 속에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국제금융의 질서재편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 한국의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만 한다.

4.19 박근혜 대통령 살해계획을 서울 경찰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 수사를 펼 것인지 내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켜볼 일이지만.

북한의 만행을 부추기는 끈이 서울에서 날 뿜다는 것은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아픔, 고종고(苦中苦)인가!!

꿈(고): 味也미야 = 쓸 고

이 글자의 그림은 十(십자가) 셋이 엉켜 말씀(口) 혹은 나라(國=口) 위에 얹혀 있다.

이 글자를 그대로 표현한 성경구절이 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 Two other men, both criminals were also led out with Him to be execute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criminals - 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 - 누가복음 23:32, 33

이에 좌우편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사이하고 자기들의 잘잘못을 시비할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 누가복음 23:43

바로 십자가 셋을 제외한 "말씀(口) 또는 나라(口=國) 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樂園) 또는 천국(天國)을 뜻한다.

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문제가 된다. "十가의 도(道)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 고린도전서 1:18

그러므로 꿈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좌우에 十를 진 강도들의 최후를 선명하게 그리며" 이 그림을 바울 사도가 증언해 주었다.

예수님의 직접 증언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 요한복음 14:6

이 말씀 구절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진리의 요체들이다.

이 길(the Way)이 곧 十죽음을 거쳐 하늘 나라에 종착하는 영생(永生)의 길이다.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十를 사랑의 뿌리로 알고 꿈을 통해야만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인 것을 믿는다.

까닭에 꿈(고생)하면 "十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주(主)님의 숨(ノ)결, 즉 생이 하늘나라에서 연결이 안된다" 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박정희, 육영수 부모님을 통해 청와대가 꿈생의 본부인 것을 알았을 게다. 아니 성심중학교에서 이 十를 알았을 테니까.

"꿈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오나다..." 찬송을 부르며 -.

#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가시는 길에 배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개인 또는 어느 모임원에 좋지않은 그림자를 남겨 두었다면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함께 지니고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모두 잊어 주시고 용서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가끔은 떠올려지는 한 사람으로 많은 분들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며... 고 서정섭 옹의 가족일동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고 서정섭 옹의 유가족

- 장남 : 서 원석 며느리 : 허 용례
- 손자 : 서 승원 손자 며느리 : 이 은진
- 증손자: 서 동휘, 서 동건
- 손녀 : 서 은경
- 차남 : 서 인석 며느리 : 안 계향
- 손녀 : 서 영주, 서 진주
- 삼남 : 서 강석 며느리 : 정 수영
- 손자 : 서 지원 손자 며느리 : 김 정은
- 손자 : 서 정원
- 딸 : 서 현숙 사위 : 이 진원
- 외손자 : Oliver Lee 외손자 며느리 : 이 소정
- 외손자 : Leo Lee



제품문의 주문전화 **213.487.0125** 일 이 오세오~  
 www.heraldemart.com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을수 있는 홈쇼핑



**명품 공진단**  
 精氣를 돈우고 氣와 血을 원활하게 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명약**

**공진단**  
 공진단은 사향, 녹용 등 최고의 약재를 엄선하고 동의보감 원 처방의 정통(正統) 정방(正房)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31% ~~\$800~~ \$550 10% OFF  
 37% ~~\$1980~~ \$1250 30% OFF

스중한 분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명품 공진단을 추천합니다!

공진단의 효능  
 1. 기혈순환 2. 면역력 강화 3. 노화방지 4. 피부미용 5. 소화기능 개선 6. 스트레스 완화 7. 기억력 향상 8. 수면개선 9. 당뇨예방 10. 고혈압 예방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 신아타 브라질산 명품  
**순도 100% 고품질, 항암치료, 헬리코 박터 사멸!**  
**현존하는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자랑하는 그린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란?**  
 브라질에서도 마나스쿠에서 생성되는 깊은 정록색 액기스로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장인 기업에서 만들어진 화라상, 희소성 가치를 지닌 제품입니다.

**Artepillin-C**  
 강력한 항암작용 제제로 최근 일본 국립예방연구원 마쓰노데스야 박사에게 의해 최초로 발견된 물질로서 오직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있는 성분입니다.

효과 및 기능  
 위암, 폐암, 유방암, 위산과다, 만성위염, 특효 알러지비염, 축농증, 잇몸 염증, 임플란트 염역기능 강화(SOD 효소 다량 함유) 진통, 저혈, 전립선, 자궁경부 계통 질환 박테리아, 바이러스 멸균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무좀,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지질, 강한 항암작용(Artepillin-C), 각종 종양 제거 당노, 간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천연항생제로 소문난 프로폴리스는 항암효과 및 면역력 강화에 탁월!

21% ~~\$100~~ \$79

대한민국 원도의 청정바다가 증 증 **해림후코이단**

한국정부의 해양바이오 사업으로 탄생한 '해림 후코이단' 미국상륙!

방사능 오염에 걱정없는 원도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림후코이단을 만나보세요

후코 플러스 세븐베리즈 (80ml x 30팩) \$249  
 프리미엄 후코아셀 (690ml) \$399  
 후코이단 에코 (50ml x 30팩) \$199

고품질 후코이단과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등 7가지 베리가 배합된 제품  
 후코이단은 물론 또 다른 항암 물질 후 코산틴과 커큐민까지 첨가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후코이단에 미네랄을 넣어 그 기능을 더욱 배가 되어 맛 좋게한 제품입니다.

**뒤아내는 올인원실팩!**  
**연예인 청담금실팩!**

**10 in 1**  
 팩 하나로~ 싹!

당겨주고, 채워주고!  
 피부 겉과 속을 한 번에 케어해주는 **ALL KILL** 금실 리프팅팩

전속모델 연예서

20% ~~\$99~~ \$79

한국 홈쇼핑 대박상품

50만보 보상 채워주기  
 특급정품 채워주기  
 피부 수분함양 채워주기  
 피부 탄력 채워주기  
 피부 윤기 채워주기

[에어 프라이어]  
**Air Fryer**  
 기름없이 공기로 튀기는 건강한 튀김기

기름이 없어도 튀김이 맛있고, 기름이 없어도 튀김이 건강하고, 기름이 없어도 튀김이 맛있다.

40% ~~\$315.95~~ \$189.95



**LG 놀이방매트**



- “아이가 좋아하는, 유익한 디자인”  
**명품 캐릭터, 다양한 학습놀이**
- “자세히 볼수록 빠져드는 놀이방매트”  
**안전과 편안함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 “아이가 쓰는 제품 청결이 제일이지요”  
**쉽고, 편리하게 물걸레 하나로 OK**
- “매트 위에 넘어져도 안심인 이유?”  
**LG하우시스만의 탁월한 쿠션감**

11% ~~\$179.99~~ \$159.99  
 13% ~~\$149.99~~ \$129.99  
 11% ~~\$279.99~~ \$249.99  
 11% ~~\$279.99~~ \$249.99  
 9% ~~\$219.99~~ \$199.99  
 9% ~~\$219.99~~ \$199.99

프리미엄 고급중형 뽀로로 여행 130x190x1.5cm  
 프리미엄 중형 뽀로로 기차놀이 130x190x1.1cm  
 1등급 놀이방 뽀로로 렛츠고 210x140x1.8cm  
 아소방매트 210x140x1.8cm  
 고급초대형 놀이방매트 230x140x1.5cm  
 프리미엄 고급초대형 뽀로로 친구들 250x140x1.5c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74) 재정설계사의 속마음

미국의 증권거래기관(SEC),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미국 은퇴자 모임(AARP), 등에서 투자를 도와주는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Fiduciary Duty(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 지난 2010년부터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주(3/1/2015)에 설명했습니다.

‘신용의 의무’란 고객의 돈을 운용할 때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Insurance Agent),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사람(Stock Broker), 시중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등은 현재 ‘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몸담은 회사와 본인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 표지만을 보고 책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부회장(Vice President)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Senior Specialist)라고 칭하는 비슷한 타이틀만 무려 50

여개가 됩니다. (Forbes, Watch Out For ‘Senior Specialist’ Financial Advisers) 어떠한 타이틀은 회비를 내고 세미나에 참석만 하면 받습니다. 재정설계사의 직함이나 무슨 전문가라는 타이틀로는 재정설계사의 능력이나 진실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고객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령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도 없고 겉으로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재정설계사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하는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해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재정설계사는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며 수수료(commission or fee)를 받드시 부과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서 재정설계사가 자세히 설명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정설계사가 과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뉴어티(annuity)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nontrade REIT)과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재정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융상품의 판매로 재정설계사가 수수료로 10%를 금융회사로부터 받는다면 이것이 투자자를 위한 상품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돈을 분산투자한다고 하며 여러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뮤추얼 펀드에는 재정설계사가 수수료(Load)를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고 수수료가 없는 펀드가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수수료는 5~6% 합니다. 투자자가 ‘A’ 라는 펀드를 직접 선택하면 이러한 수수료가 없지만, 재정설계사가 똑같은 ‘A’ 펀드를 선택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선택한 투자종목으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에게 투자 종목을 선택하며 재정설계사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영어로 “Conflicts of interest”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를 위해서 분산투자를 했지만, 이것이 재정설계사에게 이익이 발생했

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산투자도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수익을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를 고용하기 전 제일 먼저 질문해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내는가(How much do I pay you?)”와 둘째는 “당신이 투자상품이나 투자종목을 선정하며 얼마를 받는가(Do you get paid anything based on the products you recommend to me?)”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강 넘어가지 말고 분명해야 합니다.

‘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보험 인이나 브로커는 언급할 것도 없고 ‘신용의 의무’ 를 준수해야 하는 재정설계사도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지(disclose)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설계사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의 첫걸음” 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7) 인적공제(Exemptions) / 항목별공제-1(itemized deduction)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Foreign Housing Exclusion규정을 적용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면, 그 제외된 소득과 관련된 비용(expenses)은 세금계산시 다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은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다른소득에서 차감해 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래의 항목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Foreign Housing Exclusion의 적용여부와 관련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 의료비(Medical expenses)
- 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
- 거주주택에 대한 재산세 (real estate tax)

1. 인적공제(exemptions)  
 인적공제(exemption)란 과세표준(taxable income) 계산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3,950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인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personal exemption’ 이라 하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공제를 ‘dependency exemption’ 이라 합니다.

인적공제 규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3,950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면?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경우 납세자는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보아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신고자는 당연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신고하지 않고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하는 경우와 요건을 갖춰 세대주신고(Head of household)하는 경우는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세금 목적상 소득이 없어야 하고,  
 -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미국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양가족공제(dependency exemption)  
 ‘dependency exemption’ 이란 요건을 갖춘 자녀나 친척(또는동거인)들에 대한 공제를 말하는데, 반드시 법에서 정한 ①자녀(qualifying child)의 요건과 ②친척(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공제 대상인 자녀의 범위나 친척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 적용시 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삭감규정(phase-out)  
 조정후소득금액(AGI)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액씩 인적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phase-out).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공제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자(filing jointly) : \$305,050,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separately) : \$152,525, 세대주신고자(head of household) : \$279,650, 독신자(single) : \$254,200입니다.

2.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의·식·주와 관련된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ses)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합니다.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①의료비(medical expenses), ②세금(taxes), ③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 ④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⑤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⑥업무 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

neous expenses)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과 같이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 에 기부한 기부금은 항목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단체는 요건을 갖춘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한국의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등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요건을 갖춘 미국의 단체에 낸 기부금은 당연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은 제외)가 ‘조정된 총소득 금액(AGI)’ 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의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료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비 공제는 미국외의 다른나라에서 발생한 의료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티비( *enjoy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 TV는 사랑을 싣고

##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3월 31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더 어려운 듯, 더 쉬워진 개정판 AP US History (2) 멀티플 초이스와 역사적 사고력

“암기하되, 이해하라”는 뻔한 조언은 사실 공부할 때 역사학적 사고력을 함께 키워 보라는 뜻이다. 즉, 적어도 역사를 공부할 때만큼은 맥락화 (Contextualization), 비교 (Comparison), 역사적 사실의 인과 분석 (Historical Causation), 유관 증거의 적절한 사용 (Appropriate Use of Relevant Historical Evidence), 역사적 과정의 성장 및 변화 패턴 (Patterns of Continuity and Change over Time), 그리고 시대구분 (Periodization)의 능력을 동원하는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다른 예들을 더 보도록 하겠다.

Refer to the excerpt below.

“Yet, after all our years of toil and privation, dangers and hardships upon the ... frontier, monopoly is taking our homes from us by an infamous system of mortgage foreclosure, the most infamous that has ever disgraced the statutes of a civilized nation. ... How did it happen? The government, at the bid of Wall Street, repudiated its contracts with the people; the circulating medium was contracted. ... As Senator Plumb [of Kansas] tells us, ‘Our debts were increased, while the means to pay them was decreased.’

1. In the speech, Lease was reacting

[A]s grand Senator ... Stewart [of Nevada] puts it, ‘For twenty years the market value of the dollar has gone up and the market value of labor has gone down, till today the American laborer, in bitterness and wrath, asks which is the worst: the black slavery that has gone or the white slavery that has come?’ ”

— Mary Elizabeth Lease, speech to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1890

primarily to the problems faced by which of the following groups?

- (A) Bankers
- (B) Southern European migrants
- (C) Farmers
- (D) African Americans

2. Lease’s views best reflect the influence of which of the following developments in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the 1890s?

- (A) Increased calls for radical overthrow of the federal government
- (B) Rising grassroots challenges to the dominant economic system
- (C) Greater support for corporate power in agriculture

(D) Emerging ideological justifications for inequities of wealth

3. People who agreed with the argument made in the speech would most likely have recommended which of the following solutions?

- (A) Separate but equal segregated facilities to increase job opportunities for white workers
- (B) Continuation of the gold standard as the basis for money
- (C) Reduced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economy in order to create more competition
- (D) A stronger government role in the economic system

약간의 배경지식이 없다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지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배경지식을 동원하면 지문에서 힌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힌트는 이 지문 속 연설의 연대, 1890년이다. 두번째 힌트는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화폐의 가치는 상승했지만 노동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대목이다. 도금시대라 불리는 19세기 후반 거대 산업자본은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도시의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 계급이나 남부 및 서부의 소농들의 상황은 열악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즉, 이 연설의 저자는 노동자 혹은 농민의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

세번째, “차압 당하는 집,” “빛은 늘었

는데, 빛을 갚을 방법은 줄어들었다” 라는 대목과 함께 “개척지에 처한 어려움”이라는 언급, 그리고 “흑인 노예가 백인 노예로 대체되었다”는 대목에 주의하자. 이에 더해 이 연설이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기독교 여성 절주 연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금주법 및 절주 운동은 이민자가 많이 정착한 동부나 서부의 해안지역보다는 중부와 남부의 종교적으로 보수색채를 지닌 지역에서 더욱 지지를 받았다) 이른바 이 연설은 인민주의자 (Populist)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첫번째 문제의 답은 쉽게 “농부”를 선택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기업형 농업의 등장과 철도 회사의 독점, 흉작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채무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이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빛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중서부와 남부의 농민들이 제안했던 개혁 운동이 바로 인민주의 (Populism)이었다.

1892년 및 1896년 대선에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진출시킨 인민당 (People’s Party)의 강령은 당시 농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여러 개혁안을 반영하고 있다. 즉 두번째 문제의 답은 B가 된다. 그 개혁안 중에는 철도의 공기업을 포함, 정부가 자유방임의 태도에서 자본에 대한 규제로 돌아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즉, 세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D로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짱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선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유리 0.4mm의 두께로 쉽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www.pospay24.com



#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일식식당 Beer & Wine,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용자 가능

보스턴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턴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턴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3,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 사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3.7(토)~3.21(토)

• 공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4.18(토)~ 4.26(일)

• SAT I Class  
\*주말 SAT 1 Class와 같은 시간구성  
\*5.02, 6.06일 SAT 시험대비 집중반

• SAT II Subjects Classes  
-Math II C, Bio, Phycisc, Chemistry  
-그룹및 개인지도 가능  
-Skype수업가능

### 2015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9:00-12:00 실전문제 풀이  
12:00-1:00 점심, vocabulary test  
1:00-4: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4:00-5:00 실전문제 풀이

• Writing Class  
\*현직 영어교사 강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4~5학년:10:00-12:00(토)  
\*6~8학년:12:00-2:00(토)

• AP 및 SAT II subject test 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수업 가능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